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백제의 고창·영광지역 지배 과정과 그 추이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최 영 은

백제의 고창·영광지역 지배 과정과 그 추이

지도교수 권 오 영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최 영 은

최영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위 원 장	정 요 근
부위원장	권 오 영
위 원	김 낙 중

국문초록

백제의 고창·영광지역 지배 과정은 백제의 시기별 지방통치 구상, 현지 세력의 존재 양태와 대응, 그리고 당시의 대내외 정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고창·영광지역 정치체의 성장은 3세기 중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소하천 유역에 형성된 개별 취락이 상호 결집하여 기본 단위의 정치체를 이룬다. 각 권역에서 성장한 정치체 간에는 정치·사회적 차등과 통합이 공존하였는데, 환두도와 구슬류 부장의 편중과 동일 모티프의 문양 공유라는 현상에 반영되어 있다. 이때 고창천 유역의 정치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주변 권역보다 우세한 세력으로 대두하였다. 이들은 해로를 통한 외부와의 교류를 기반으로 성장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역사적 실체는 《三國志》의 마한 50여 국 중 하나인 '牟盧卑離國'으로 비정된다.

4세기 후엽 백제는 남진을 통해 김제 이남 흥덕 이북 일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고창·영광지역에도 백제 중앙과 관련된 물질문화가 산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5세기 중엽 이후 고창·영광지역에는 고총이 축조되고 백제 중앙으로부터 위세품이 반입되기 시작하는데, 봉덕리 고분군이 대표적이다. 고총 축조와 위세품 사여는 지역 정치체의 내적 성장과 백제 중앙의 지배력 강화가 결합되어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봉덕리 1호분에는 새로운 묘제인 횡혈식석실이 수용되고 누대에 걸쳐 금동식리 등의 착장형 위세품과 중국제 청자 등 외래 기성품이 부장되었다. 백제 중앙은 봉덕리 고분군 축조 집단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노령산맥 이북 지역에 대한 지배력 강화, 일본열도와의 교류 활성화, 영산강 하류로의 수륙 교통로 확보 등의 이점을 취하고자 했다. 한편 봉덕리 고분군 축조 집단은 백제 중앙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입수함과 동시에 백제 왕권의 위신을 활용하여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재창출하였다. 이처럼 위세품 수수의 메커니즘은 백제 중앙과 현지 세력 양자 모두의 수요에 의해 작동되었다.

한성기 후반 백제는 고구려와의 대결 구도 속에서 적극적인 대왜 외교를 타진하였다. 이에 따라 고창·영광지역이 갖는 서해 연안 항로에서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법성포 인근에 축조된 전방후원형 고분에는 당시의 국제정세 속에서의 현지 세력의 역할이 반영되어 있다.

웅진 천도 이후 백제는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재정비하였다. 특정 지방 유력 세력을 우대하여 지역 지배에 활용하는 방식이 아닌 전 지역을 획일적인 시스템 내에 위치 지우고자 했다. 이에 따라 백제 중앙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위세품을 독점하던 봉덕리 고분군 축조 집단의 위상과 권한은 점차 주변부로 분산되었다. 흥덕 오호리 유적의 청동 인장은 그 일대를 지배하던 지방관적 성격의 인물의 존재를 시사한다.

사비기가 되면 백제는 方-郡-城 체제를 통해 전 영역에 대한 군현제를 실시한다. 고창·영광지역은 고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방의 관할 영역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 중앙의 지배력은 중방을 매개로 지역 사회에 전달되었으며 분묘와 생산체제의 규격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고창·영광지역은 백제의 완전한 '지방'으로 편제되었다.

주요어 : 백제, 고창, 영광, 지방지배, 영산강유역, 중방
학 번 : 2019-26241

목 차

머리말 ····· 1

一. 고창·영광지역 정치체와 백제의 영역 확대 ····· 7
1. 고창·영광지역 정치체의 성장 ····· 7
2. 한성기 백제의 남진과 고창·영광지역의 변화 ····· 20
3. 봉덕리 고분군 축조와 위세품 사여의 의미 ····· 30

二. 백제의 지방지배 강화와 고창·영광지역 편제 ··· 38
1. 백제의 웅진 천도와 지방지배 재정비 ····· 38
2. 사비기 方-郡-城 체제로의 편제 ····· 47

맺음말 ····· 54

참고문헌 ····· 58
Abstract ····· 68

표 목 차

[표 1] 고창천 유역 3~4세기대 주요 유적 ····· 12
[표 2] 대산천·와탄천 유역 3~4세기대 주요 유적 ····· 14
[표 3] 해리천 유역 3~4세기대 주요 유적 ····· 15
[표 4] 갈곡천 유역 3~4세기대 주요 유적 ····· 15
[표 5]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의 위치 비정 ····· 23

그 림 목 차

[그림 1] 고창·영광지역 내 주요 유적의 분포 ····· 6
[그림 2] 3~4세기대 권역별 유적 현황 ····· 10
[그림 3] 만동 유적 유구 분포와 출토유물(환두도·구슬류) 11
[그림 4] 풍납토성과 만동 유적 능형문 형태 비교 ····· 17
[그림 5] 동진강 하구권 구해안선과 4읍의 추정 범위 ····· 24
[그림 6] 선동 유적 3호분 1호 토광 출토 유리구슬 ····· 28
[그림 7] 봉덕리 1호분과 수촌리 고분군 횡혈식석실 비교 31
[그림 8]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출토 금동식리(우측) ····· 33
[그림 9] 고창지역과 백제 중앙 출토 고창계 토기 ····· 37
[그림 10] 고창·영광지역 전방후원형 고분의 입지 ····· 39
[그림 11] 오호리 유적 3호 석실 출토유물과 청동 인장 ··· 45
[그림 12] 정읍 은선리 고분군 횡혈식석실의 유형 ····· 49
[그림 13] 예지리 고분과 은선리 c-12호분 비교 ····· 51

머리말

고대국가 百濟가 성장하는 과정은 곧 馬韓과의 관계를 어떻게 전개하며 점차 그들을 통합해갔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특히 백제에 통합되지 않은 마한 잔여세력이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것으로 인식되는 전남 서부의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백제와의 관계와 지배 방식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백제와 영산강유역[1] 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은 근초고왕 대 백제의 영산강유역 진출 여부와 이후의 지배 방식이다. 일찍이 근초고왕이 전라남도 지역을 완전히 경략하였다는 견해[2]가 고대사학계의 통설로 받아들여졌다. 고고학계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4세기 후반을 마한의 下限으로 설정하고 영산강유역 물질문화의 변화를 설명하는 기본 틀로 삼았다.[3] 그러나 위 통설의 주요 근거가 되는 《日本書紀》 神功紀의 사료적 신빙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영산강유역에서 백제 중앙과는 구별되는 고고 자료가 꾸준히 축적되었다. 이에 근초고왕 대 영산강유역으로의 진출은 인정하되, 그 의미를 영토적 복속이 아닌 공납적 지배[4] 혹은 교역거점의 확보[5]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한편 이러한 통설에 대한 반론으로, 고고학계를 중심으로 영산강유역의 백제로의 통합 시기를 늦추어 보고 지역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영산강유역에서 옹관 고분과 같이 백제 중앙과 구별되는

---

1) '영산강유역'의 공간적 범위는 연구자마다 다소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영산강수계와 그와 유사한 문화양상을 보이는 주변 지역, 즉 영산강 서북부의 고창·영광, 남부의 해남반도, 탐진강 유역의 강진·장흥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낙중, 2009 《영산강유역 고분 연구》, 학연문화사, 23쪽). 본고에서도 이러한 범위 설정을 따르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산강이 직접 흘러 지나는 지역은 '영산강수계'로 표현하여 구분하고자 한다.

2) 李丙燾, 1970 〈百濟近肖古王拓境考〉 《百濟硏究》 1.

3) 金元龍, 1990 〈馬韓考古學의 現況과 課題〉 《馬韓·百濟文化》 12, 8쪽 ; 成洛俊, 1983 〈榮山江流域의 甕棺墓硏究〉 《百濟文化》 15, 79~82쪽.

4) 李道學, 1991 〈百濟의 交易網과 그 體系의 變遷〉 《韓國學報》 63, 77~78쪽.

5) 金英心, 1997 《百濟 地方 統治體制 硏究 -5-7세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8쪽.

물질문화가 지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6세기 중반까지 백제에 복속되지 않은 독자적인 정치체로서의 '마한'이 잔존했다고 보는 견해가 대표적이다.[6] 독자성을 영유한 세력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 역사적 실체를 마한이 아닌 '옹관고분사회', '新彌諸國' 등으로 상정하기도 한다.[7]

이처럼 백제와 영산강유역 관계와 지배 방식 문제를 두고 고대사학계와 고고학계의 주류를 이루는 견해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논자마다 차별성 있는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실상과 백제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다각적인 관점들이 축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기본적인 큰 틀에서조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다. 백제와 영산강유역 관계는 백제의 영역 확장과 지방통치체제 확립, 현지 세력의 성장과 변동에서 확인되는 지역성을 검토하기 위해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주제이다.

영산강수계 서북부의 고창·영광지역은 백제와 영산강유역 관계를 설명하는 돌파구가 되는 지역이다. 노령산맥이 백제의 영역 확장의 주요 界線이자 지형적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8] 그 이북에 위치한 고창·영광지역의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질문화의 측면에서 고창·영광지역에는 梯形 분구묘, 專用甕棺, 전방후원형 고분이 분포하며 토기 양식과 기종에서도 영산강수계와 친연성을 보인다. 수계가 영산강과 독립되어 있고, 남동쪽으로 노령산맥의 支脈으로 영산강 상류역과 차단되어 있음에도 물질문화를 공유하는 것은 이 지역의 고대사회가 영산강수계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고창·영광지역은

---

6) 崔夢龍, 1987 〈考古學的 側面에서 본 馬韓〉 《馬韓·百濟文化》 9 ; 林永珍, 1995 〈馬韓의 形成과 變遷에 대한 考古學的 考察〉 《三韓의 社會와 文化》, 신서원 ; 이러한 견해들은 이른바 '마한론'으로 통칭된다(梁起錫, 2013 〈全南地域 馬韓社會와 百濟〉 《百濟學報》 8, 3쪽).

7) 姜鳳龍, 1999 〈3~5세기 영산강유역 '甕棺古墳社會'와 그 성격〉 《歷史敎育》 69 ; 최성락, 2008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실체 -해석의 관점에 대한 논의-〉 《지방사와 지방문화》 11-2.

8) 유원재, 1998 〈百濟 領域變化와 地方統治〉 《百濟의 地方統治》, 學硏文化社, 19~21쪽 ; 김영심, 2003 〈웅진·사비시기 百濟의 領域〉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 101쪽.

백제의 영역 확장과 영산강유역의 독자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중첩된다는 점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지역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이 지역의 고대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계기로 발굴조사 성과들이 축적되었고, 이에 힘입어 묘제의 변천 과정을 다룬 연구들이 제출되었다. 한수영은 고창을 중심으로 부안에서 영광까지를 '고창권역'으로 설정하고, 주구묘·주구토광묘 - 분구묘 - 백제식 석실분이라는 변천 도식을 제시하였다.[9] 이중 분구묘의 전개 양상은 조규택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그는 고창과 영광의 분구묘를 검토하여 이 지역 마한 정치체의 성격과 백제에 의한 소멸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이 지역이 여타 영산강유역권과 구분될 수 있는 문화적 특성을 보임을 밝혔다.[10]

연구의 전기는 2008년부터 진행된 고창지역 내 최대 규모의 분구묘인 봉덕리 1호분에 대한 발굴조사이다. 특히 도굴되지 않은 석실에서 금동식리를 포함한 다종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학계 안팎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11] 이를 계기로 봉덕리 고분군 축조세력 또는 그를 정점으로 하는 고창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변동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이 가능해졌다. 김낙중은 고분 자료를 중심으로 고대 고창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변동을 논하였다.[12] 그는 3세기 중엽부터 5세기 전반까지 제형 분구묘의 전통이 유지되다가, 5세기 중·후엽 이후로 대형 분구묘가 축조되고 6세기 중엽부터 백제의 영향이 직접 미치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영산강유역권과 단일 문화권을 형성하지만, 내부에서 차별성도 보임을 지적하였다. 최완규·김중엽은 5세기대까지의 고창지역 물질문화를 '마한문화'의 관점에서 살피고, 6세기 중반 이후 백제의 적극적인 진출로 마한문화의 전통성이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13] 이문

9) 한수영, 2003 〈고창권역의 마한시대 소고〉 《硏究論文集》 3.
10) 趙圭宅, 2005 〈湖南 西海岸地域 3~5世紀 墳丘墓 硏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6 《高敞 鳳德里 1號墳 종합보고서》.
12) 김낙중, 2017 〈고대 고창 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변동〉 《湖南考古學報》 56.
13) 최완규·김중엽, 2019 〈고고학을 통해 본 고창의 마한〉 《고창의 마한문화유

형은 봉덕리 1호분의 매장시설과 출토유물을 자세히 분석하고, 그 축조 시기를 검토하였다. 이어 봉덕리 고분군 축조세력을 중심으로 고창지역 수장층의 성장과 쇠퇴, 백제 중앙과의 관계를 논하였다.[14]

선행 연구들은 주로 고고 자료를 통해 고창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세력의 성장과 백제 중앙 및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밝혔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백제의 영역 확장과 지방지배 제도의 변화에 대한 논증이 결여되어 백제의 지방지배 방식 전환에 연동되는 현지 세력의 동태는 충분히 해명하지 않았다. 또한, 백제 중앙과의 관계를 중요한 주제로 살피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백제 중앙을 현지 세력의 대립항으로 두고 현지 세력의 성장과 쇠퇴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이 백제의 주요한 지방 거점으로서 갖는 역사적 의미를 구체적이고 균형 있게 규명하지는 못했다.

본고는 고창·영광지역 정치체와 백제 중앙의 관계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겠다. 구체적으로 백제 중앙과 고창·영광지역 정치체가 정치적 관계를 전개하여, 백제가 점차 이 지역을 지배해가는 과정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고창·영광지역'은 현재 행정구역상 고창군과 영광군 일대를 포괄한다. 특히 유적의 밀집도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선운산 이남의 고창군 남부와 영광군 북부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노령산지와 서해안 인근 산지들로 둘러싸여 분지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고창분지'로 설정되기도 한다.[15] 이러한 범위 설정은 통일신라 때 이 지역에 설치된 군현인 武靈郡의 관할 영역[16]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고창군 북부의 흥덕면·신림면·부안면 일대는 1914년 고창군으로 병합

산》, 고창군·전라문화유산연구원.

14) 이문형, 2020 《高敞 鳳德里古墳群 築造勢力 硏究》,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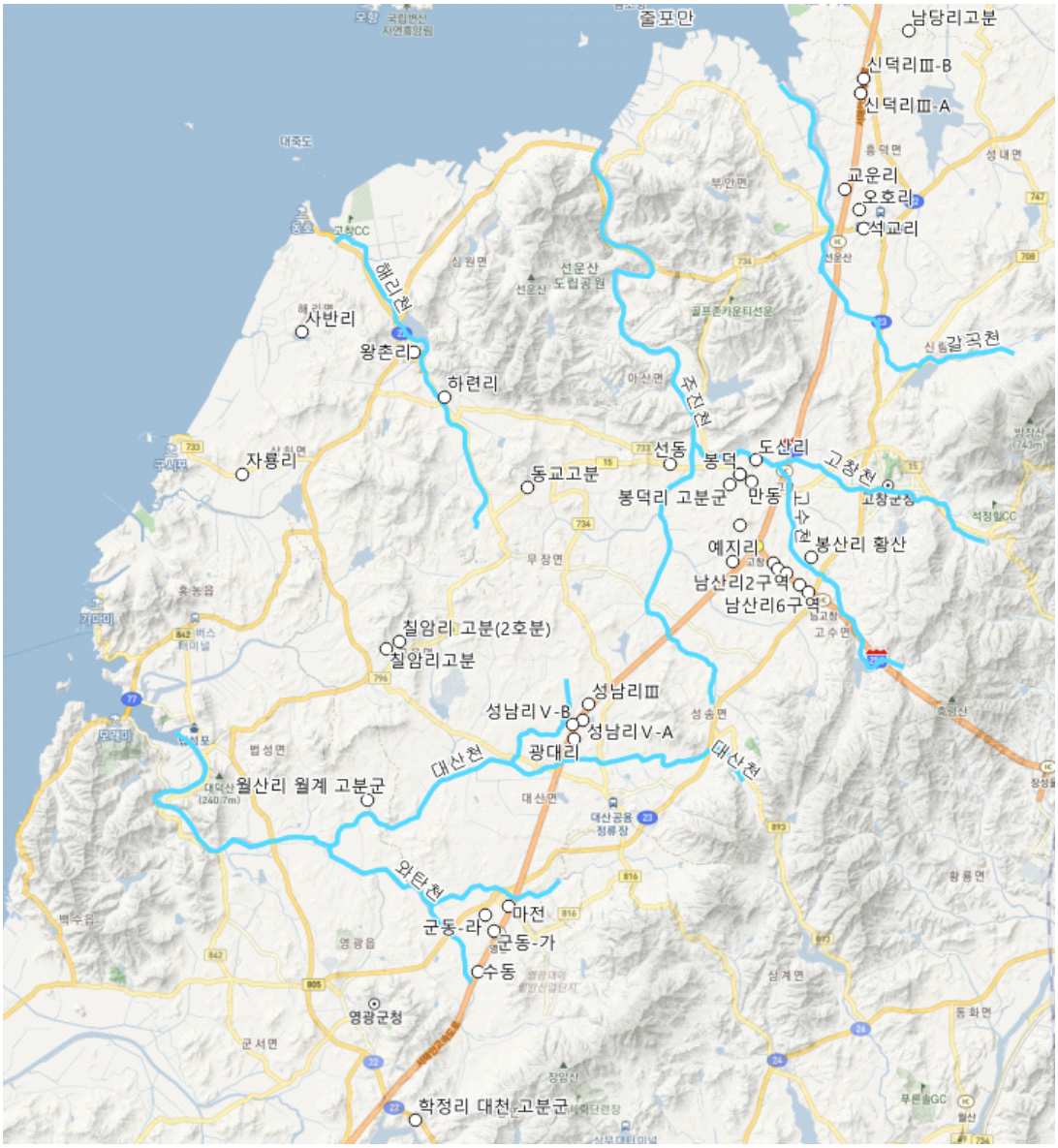
15) 金河廷, 2005 〈고창분지의 지형 발달 특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6쪽.

16) 《三國史記》 卷36 雜志 第5 地理3 新羅, "武靈郡, 本百濟武尸伊郡, 景德王改名, 今靈光郡. 領縣三. 長沙縣, 本百濟上老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高敞縣, 本百濟毛良大里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茂松縣, 本百濟松彌知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되기 이전에는 興德縣이라는 별도의 고을이었다. 삼국·통일신라 시대에도 별도의 군현으로 편제되어 정읍 고부면을 중심지로 하는 古沙夫里郡·古阜郡에 영속되었다. 후술하겠으나 백제의 영역 확장과 지배 방식에서 흥덕 일대와 그 이남은 구분되는 측면이 보인다. 한편, 영광군 남부 불갑천 유역은 지표조사 과정에서 군남면·백수읍 일대에 백제 석실분이 군집할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다.[17] 그러나 학정리 대천 고분군을 제외하면 정식으로 조사된 예가 충분치 않다. 현지 정치체의 존재 양태나 백제의 지배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중심 지역과 비교하여 보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본고는 백제의 고창·영광지역 지배 과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문헌 사료와 고고 자료를 함께 활용하였다. 문헌 사료를 통해 백제의 영역 확장과 지방지배 제도의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사료들은 주로 백제 중앙 위주로 서술되어 있다. 지역 정치체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고 자료와 문자 자료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고는 연구대상 지역 내 현재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주요 유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백제 중앙과의 관계 변화를 추적하였다.

17) 李命熹·成洛俊·孫明助·申相孝·李漢周, 1989 〈靈光地方의 古墳〉 《靈巖 臥牛里甕棺墓》, 國立光州博物館.



[그림 1] 고창·영광지역 내 주요 유적의 분포

一. 고창·영광지역 정치체와 백제의 영역 확대

1. 고창·영광지역 정치체의 성장

백제의 영역 확장과 지방통치체제 확립은 곧 백제 중앙이 훗날 지방으로 편입되는 각 지역 정치체와 정치적 관계를 형성하고 전개해가는 과정이다. 이를 양자의 쌍방향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정치체의 고유한 존재 양태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3~4세기대 고창·영광지역 정치체의 성장을 살펴보겠다.

먼저 '政治體'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지역)정치체'를 정의한 선행 연구[18]에서 공통분모를 추출해보면 ① 일정한 지리적 공간 안에서 ② 개별 聚落[19]의 집합으로 구성되며 ③ 내부적으로 정치적 관계가 형성되어 중심지가 존재하는 것이 정치체의 기본 조건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를 연구대상 지역에 적용해보면, 정치체의 성장이란 ① 고창·영광지역 내에 ② 3~4세기대 생활·분묘 유적으로 구성된 개별 취락이 ③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적 관계를 형성하는 양상을 의미한다. 이때 유적의 분포와 밀집도를 고려할 때 중심이 되는 지역은 앞서 언급한 '고창 분지'의 범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와 더불어 고창군 북부의 흥덕 일대에도 3~4세기대의 유적이 밀집하고 있어, 분석이 가능하다.

3~4세기대 단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전의 청동기·초기철기시대 기층문화에 대해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다. 고창·영광지역은 한반도 내 지석묘의 최대 밀집 지역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지석묘의 밀집도 분

---

18) 李熙濬, 2000 〈대구 지역 古代 政治體의 형성과 변천〉 《嶺南考古學》 26, 86~87쪽 ; 이영철, 2004 〈옹관고분사회 지역정치체의 구조와 변화〉 《湖南考古學報》 20, 59쪽.

19) 취락은 인간 공동생활의 기본 단위로, 인간이 한 곳에 정주하면서 발생하는 생활양식과 문화상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趙誠嬉, 2021 〈3~7世紀 全北地域 聚落의 考古學的 硏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쪽). 전체 취락의 구조는 주거지, 생산시설, 저장시설, 폐기장, 의례 장소, 분묘 등으로 구성되어 인간 행위의 제반 영역을 포괄한다.

석 결과에서 고창·영광지역은 단일한 권역을 형성하고 있는데, 청동기시대부터 이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바라보아야 함을 의미한다.[20] 생활유적의 경우, 고창 봉산리 황산 유적을 들 수 있다. 송국리형 주거지 87기와 방형 溝, 수혈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청동기시대 생활유적이 발견되어 당시 지역의 거점 취락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21] 와탄천 유역의 영광 마전 유적, 군동-라 유적에서도 송국리형 주거지군이 확인되었다.[22]

청동기시대의 발달된 양상에 비해 초기철기시대 점토대토기문화의 유입 양상은 제한적으로 확인된다. 고창군 내에서는 고창읍 율계리, 대산면 광대리·산정리, 해리면 왕촌리 유적 등 8개소가 조사되었는데 이렇다 할 밀집 양상을 보이지 않고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점이 특징이다.[23] 와탄천 유역의 경우 군동-라 유적 B지구에서 점토대토기가 부장된 토광묘(B-3·4호)가 조사되었으며, 폐쇄형의 방형계 주구를 갖춘 토광목관묘(A-18호)에서는 黑陶長頸壺가 출토되었다. 인근의 수동 유적에서는 철기와 함께 새무늬 청동기, 방제경 등의 청동기가 공반되고 있다. 점토대토기와 청동기, 철기류가 부장된 집단 분묘가 출현하는 만경강 유역 등 인접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문화의 유입이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24] 그 원인으로는 지석묘 사회가 갖고 있었던 견고한 유대감이나 강한 배타성이 지적되고 있다.[25]

초기철기시대 문화는 역사적으로 '韓'의 대두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韓이 성립하는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기원전 2세기 초 고조선 準王의 남하와 관련하여 문헌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26] '韓地',

---

20) 강동석, 2011 〈GIS를 활용한 지석묘 공간분포패턴의 사회경제적 배경 이해 - 고창분지 일대를 중심으로-〉 《중앙고고연구》 8, 9~10쪽.

21) 이정아, 2015 〈고창 봉산리 황산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 검토〉 《高敞 蜂山里 黃山遺蹟 Ⅲ》, 대한문화재연구원, 1029쪽.

22) 최성락·이영철·한옥민·김영희, 2001 《영광 군동유적 -라지구 주거지·분묘-》, 목포대학교박물관 ; 이기길·김선주·최미노, 2003 《영광 마전·군동·원당·수동유적》, 조선대학교박물관.

23)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020 《전북지역 馬韓 문화 - 성립기편》, 30~32쪽.

24) 최완규·김중엽, 2019 앞 논문, 139쪽.

25) 최완규, 2015 〈마한 성립의 고고학적 일고찰〉 《한국고대사연구》 79, 53쪽.

26)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韓王’이라는 표현을 볼 때 이미 한반도 중부 이남에 韓으로 불리는 지역 혹은 정치세력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 韓은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 신석기시대 이래 장기간 계승·발전된 다양한 종족집단에 대한 통칭’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27] 기원전 2세기에 마한과 진·변한으로 분화하여 삼한이 정립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8] 이후 기원후 3~4세기대까지 현재의 경기-충청-전라 지역에서 성장·발전한 각 지역 정치체 중 일부가 《三國志》의 마한 50여 ‘國’으로 기록되게 된 것이다.

고창·영광지역에서 정치체의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는 생활·분묘 유적은 대체로 기원후 2세기 중·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29] 3~4세기대까지 연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몇 개의 소하천을 따라 구분되어 밀집하고 있는데, [그림 2]와 같이 고창천, 해리천, 대산천·와탄천 그리고 갈곡천 유역이 중심이 된다.

自號韓王.”

27) 권오영, 2010 〈馬韓의 종족성과 공간적 분포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60, 15쪽.

28) 성정용, 2018 〈마한의 시간과 공간〉 《마한고고학개론》, 진인진, 17쪽 ; 《三國志》 魏書 東夷傳 辰韓 기사에서 마한이 韓國으로도 지칭된다는 점을 근거로, 마한이 준왕 南奔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盧重國, 1987 〈馬韓의 成立과 變遷〉 《馬韓·百濟文化》 10, 27쪽).

29) 고창·영광지역에서 기원후 2세기 중반 이전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 이후 시기와 비교할 때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비단 고창·영광지역뿐만 아니라 호남지역 전체에 적용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소위 ‘문화적 공백기’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조사 지역의 지역적·지형적 편중, 기온이나 사회체제 변화에 따른 생활 터전의 이동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김은정, 2016 〈전북지역 원삼국시대 문화적 공백기에 대한 재검토〉 《중앙고고연구》 19, 64쪽).

[그림 2] 3~4세기대 권역별 유적 현황

고창천 유역의 예지리 유적이 비교적 이른 시기의 양상을 보여준다. 예지리 유적은 구릉 정상부와 남사면에서 단순토광묘와 분구묘[30]가 조사되었다. 그중 4호 토광묘에서 圍石 시설이 확인되고, 분구묘가 연접·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2세기에서 3세기 중엽이 중심 연대일 것으로 보고되었다.[31] 더불어 4호 토광묘와 4호 분구묘에서 각각 출토된 환두소도와 철모가 충청 일원에서 출토되는 것과 유사하여 연대를 2세기대로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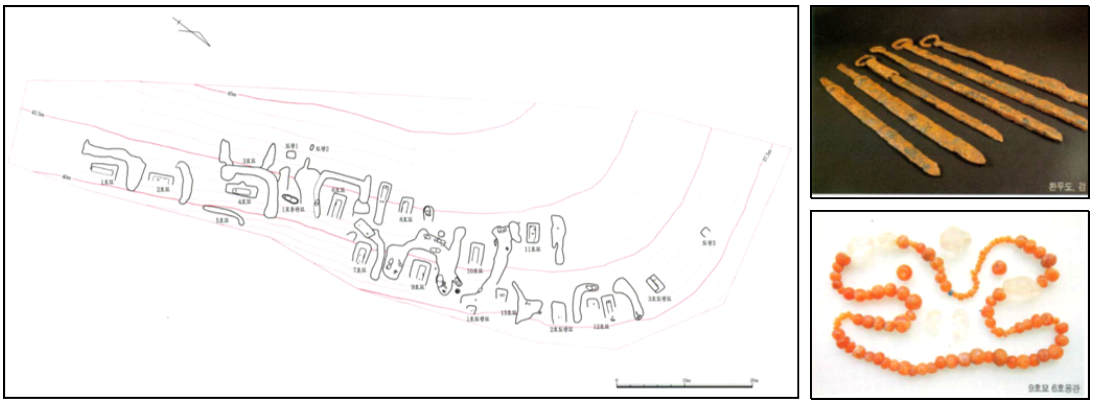
30) 발굴조사보고서에서는 '주구묘'로 기술하였는데, 성토하여 분구를 조성하고 매장시설을 안치한 묘제라는 점에서 '분구묘'로 아우를 수 있다(최완규 책임편집, 2006 《韓國의 墳丘墓 資料集》, 제49회 전국역사학대회 고고학부 발표자료집, 203~206쪽). 이하의 유적에서도 위와 같은 특징이 확인되는 분묘는 '분구묘'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31) 전주대학교 박물관, 2002 《서해안 고속도로(군산-고창) 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고창 예지리·우평리-》, 82~85쪽.

향할 수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32]

3세기 중엽부터 분구묘의 입지가 대부분 구릉 사면부로 이동하고, 평면형태 역시 점차 사다리꼴(梯形系)로 변화한다. 이는 방형계 분구묘의 빈도가 높은 전북 서북부 지역과 대비되는 현상이다.[33] 제형계 분구는 영산강유역에서 집중되는 특징으로, 중심 매장시설로 목관이 단독으로 사용되고, 주구 또는 분구 대상부 가장자리에 옹관이나 목관이 추가장되는 현상이 나타난다.[34] 3세기 이후가 되면 주거지의 형태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방형계의 평면형태에 주공을 갖춘 四柱式 주거지가 증가하는데, 벽구와 부뚜막을 갖추었으며 주로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이중구연호, 양이부호 등의 기종이 출토된다.[35]

고수천이 고창천으로 합류하는 지점의 독립구릉 사면에 입지한 만동 유적에서는 제형계 주구를 갖춘 분구묘 9기가 서로 연접 또는 중복되어 축조되었다.[36] 중심 매장시설은 분구 대상부 한가운데 목관으로 시설하였으며, 주구가 퇴적된 이후 옹관과 목관이 많게는 7기까지 추가로 매장되었다.



[그림 3] 만동 유적 유구 분포와 출토유물(환두도·구슬류)

32) 최완규·김중엽, 2019 앞 논문, 143~144쪽.
33) 이택구, 2015 〈전북지역 분구묘의 제 속성 비교 검토〉 《韓國考古學報》 97, 77~78쪽.
34) 김낙중, 2009 앞 책, 115~118쪽.
35) 金承玉, 2004 〈全北地域 1~7世紀 聚落의 分布와 性格〉 《韓國上古史學報》 44, 62~63쪽.
36) 金建洙·李永德, 2004 《高敞 萬洞遺蹟》, 湖南文化財硏究院.

만동 유적과 같은 구릉에서는 동시기의 대단위 생활유적이 확인되었다. 봉덕 유적과 도산리 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에서 각각 56기, 28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37] 대부분의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방형계이며, 주공 형태는 사주식이 우세하다. 내부시설로는 벽구와 부뚜막이 확인되었으며 주거지 외부에 溝를 두른 경우도 확인되었다. 해당 생활유적은 만동 유적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고창천 유역 3~4세기대 주요 유적

유형	유적명	유구 현황(기수)	출토유물
분묘	예지리	분구묘(6), 옹관묘(1), 단순토광묘(10)	이중구연호, 단경호, 조형토기, 환두도, 철모, 철겸, 구슬류 등
	만동	분구묘(9), 주구토광묘(4), 단순토광묘(3), 옹관묘(1)	이중구연호, 양이부호, 단경호, 환두도, 철모, 철겸, 철촉, 구슬류(유리·수정·홍옥수) 등
	남산리 (1·2·5구역)	분구묘(11), 옹관묘(13), 단순토광묘(16)	이중구연호, 단경호, 환두도, 철모, 철겸, 철부, 구슬류(유리·금박유리) 등
생활	봉덕	주거지(56), 구상유구(2)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이중구연호, 양이부호, 철겸, 철부, 토관, 내박자 등
	도산리 생태공원부지	주거지(28), 수혈(3), 구상유구(11)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호형토기, 시루, 이중구연호, 철겸 등
	남산리 (3·4·6구역)	주거지(65), 토기가마(1), 폐기장(1), 구상유구(9)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호형토기, 시루, 이중구연호, 철겸, 토관, 내박자 등

인근의 남산리 일대에서도 분묘와 주거지가 함께 확인되었다. 남산리 유적은 총 6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는데, 전체 조사범위에 걸쳐

37) 김건수·노미선·양해웅, 2003 《高敞 鳳德遺蹟Ⅱ -주거지·구-》, 湖南文化財硏究院 ; 조선문화유산연구원, 2021 《고창 도산리 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 자료집》.

분구묘 11기, 단순토광묘 16기, 옹관묘 13기와 주거지 65기, 토기 가마, 폐기장 등이 확인되었다.[38] 분구묘와 주거지의 양상은 앞서 서술한 만동-봉덕 유적의 양상과 대체로 유사하다. 주목되는 것은 3구역에서 확인된 토기 가마와 폐기장인데, 남산리 일대의 분묘와 주거지에서 사용된 토기와 옹관 생산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와탄천의 지류인 대산천 유역에서도 구릉마다 분묘군과 그에 대응하는 생활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성남리Ⅲ 유적에서는 제형계 분구묘가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분구 대상부 중앙에 목관이 1기씩 설치되며 그 주변과 주구 내에 옹관과 목관이 추가되었다.[39] 인접한 성남리Ⅴ-A·B 유적에서는 방형계 사주식 주거지와 함께 토기 가마, 폐기장, 토기의 보관과 건조를 위한 부속시설로 추정되는 지상 건물지가 확인되었다.[40] 남산리 유적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분묘군과 주거군에 토기를 공급하기 위한 생산 유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와탄천 상류의 영광 원흥리·화평리 일대의 양상 역시 유사하다. 분묘 유적의 경우 군동-라 유적 A지구에서 분구묘 22기, 단순토광묘 11기가 조사되었다.[41] 평면형태가 제형계이며 옹관과 목관의 추가장이 이루어지는 점이 다른 권역과 공통적이다. 같은 시기의 생활유적으로는 마전 유적, 생산 유적으로는 군동-가 유적의 토기 가마와 작업장으로 추정되는 수혈 주거지를 들 수 있다.[42] 가마와 작업장 주변에서 토기 소성품과 함께 내박자, 토기받침 등 窯道具도 출토되어 당시 토기 생산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43]

---

38) 전북문화재연구원, 2007 《高敞 南山里遺蹟 -住居址-》 ; 金鍾文·金圭正·梁英珠, 2007 《高敞 南山里遺蹟 -墳墓-》, 전북문화재연구원.

39) 최완규·조규택, 2005 《高敞의 周溝墓 -新德里Ⅲ-A, 道山里, 城南里Ⅲ·Ⅳ, 光大里 遺蹟-》,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40) 최완규·조규택, 2006 《高敞의 住居址 Ⅱ -牛坪里Ⅱ, 洛陽里, 城南里Ⅰ·Ⅴ-A·Ⅴ-B·Ⅵ遺蹟-》,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20～128쪽.

41) 최성락·이영철·한옥민·김영희, 2001 앞 책, 268～275쪽.

42) 이기길·김선주·최미노, 2003 앞 책.

43) 이지영, 2008 〈호남지방 3～6세기 토기가마의 변화양상〉 《湖南考古學報》 30, 78～79쪽.

[표 2] 대산천·와탄천 유역 3~4세기대 주요 유적

유형	유적명	유구 현황(기수)	출토유물
분묘	성남리Ⅲ	분구묘(12), 옹관묘(4)	이중구연호, 양이부호, 광구호, 완, 철부, 철도자, 구슬류 등
	군동-라 A지구	분구묘(9), 주구토광묘(4), 단순토광묘(3), 옹관묘(1)	이중구연호, 양이부호, 광구호, 철모, 철겸, 철부, 철도자, 구슬류(홍옥수) 등
생활	성남리 Ⅴ-A·B	주거지(2), 토기 가마(3), 지상 건물지(1)	발형토기, 옹형토기, 방추차, 내박자, 토기받침 등
	마전	주거지(9)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시루, 이중구연호, 단경호 등
	군동-가	주거지(1), 토기 가마(3), 수혈(2), 구상유구(2)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호형토기, 내박자, 토기받침 등

서해안에 면한 고창 북서부 해리천 유역에는 소분지 형태의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사반리 유적에서는 주거지 52기, 굴립주 건물지 17기, 수혈 118기, 구상유구 120기, 야외노지 3기가 조사되어 이 권역의 중심적인 대단위 취락이었을 가능성이 있다.[44] 하련리 유적과 왕촌리 유적 역시 3세기 중엽에서 4세기 후반을 중심 연대로 하는 생활유적이다.[45] 다만 해리천 유역에서는 이에 대응되는 3~4세기대의 분묘군은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44) 黃昌漢·李秀鴻·鄭鉉錫·成旻浩·鄭大鳳·金一中, 2021 《高敞巳盤里遺蹟》, 蔚山文化財硏究員.

45)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20 《고창 하련리유적》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고창 금평리·왕촌리·고성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표 3] 해리천 유역 3~4세기대 주요 유적

유형	유적명	유구 현황(기수)	출토유물
생활	사반리	주거지(52), 굴립주 건물지(17), 수혈(118), 야외노지(3), 구상유구(120)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시루, 철겸, 철정, 방추차 등
	하련리	주거지(27)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이중구연호, 내박자, 방추차, 송풍관 등
	왕촌리	주거지(21)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등

마지막으로 고창 북부 갈곡천 유역의 양상을 살펴보면, 신덕리 일대에서 분묘(신덕리Ⅲ-A 유적)와 생활유적(신덕리 Ⅰ·Ⅱ·Ⅲ-B 유적)이 마주하여 위치하고 있다.[46] 교운리 유적에서도 3~4세기대 대단위 생활유적이 확인되었는데, 역시 다른 권역과 마찬가지로 방형계 사주식 주거지가 우세하다.[47]

[표 4] 갈곡천 유역 3~4세기대 주요 유적

유형	유적명	유구 현황(기수)	출토유물
분묘	신덕리Ⅲ-A	분구묘(2), 옹관묘(4)	양이부호, 원저단경호 등
	신덕리Ⅲ-B	분구묘(2)	이중구연호, 대형 옹 등
생활	신덕리Ⅱ	주거지(13)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호형토기, 시루, 토관 등
	신덕리Ⅲ-B	주거지(6), 수혈(2)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호형토기, 시루 등
	교운리	주거지(44)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시루, 이중구연호 등

46) 최완규·조규택, 2005 앞 책, 51~54쪽 ; 최완규·조규택·양영주, 2006 《高敞의 住居址 Ⅰ -新德里Ⅰ·Ⅱ·Ⅲ-B, 新松里, 竹林里 支石墓, 竹林里, 山亭里 遺蹟-》,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47) 金建洙·韓修英, 2002 《高敞 校雲里 遺蹟》, 湖南文化財硏究院.

이렇게 소하천 별로 권역을 달리하더라도 대부분 제형계 분구묘군과 방형계 사주식 주거지군이 짝을 이룬 복수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권역 안에서 유적 간 분묘와 주거지의 밀집도, 규모, 출토유물 등에서 차등을 보이므로, 위계로 대표되는 정치·사회적 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권역별로 복수의 취락이 결집하여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정치체를 형성하는 양상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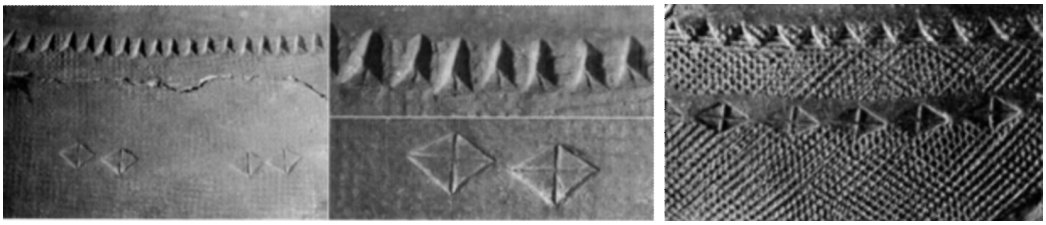
소하천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각 정치체 간의 정치·사회적 관계는 출토유물의 종류와 동일한 양식의 공유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먼저 분묘의 피장자와 함께 묻힌 부장품의 종류와 양을 통해 정치체의 성장 정도나 위계를 추적할 수 있다. 부장품의 종류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피장자의 정체성과 위신을 보여주는 위세품이다. 3~4세기대 위세품으로 주로 사용된 것은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구슬류(유리, 수정, 홍옥수 등)와 환두도 등으로, 이러한 종류의 유물은 고창천 유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만동 유적의 분구묘에서는 유리, 수정, 홍옥수로 만든 구슬과 환두도의 부장이 두드러진다. 남산리 유적에서도 구슬류와 환두도가 부장되며 구슬류 가운데는 금박유리구슬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이외의 권역에서는 부장품의 양 자체가 적고, 대부분 토기류나 철제 농·공구류로 한정된다. 고창천 유역을 벗어나면 환두도는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구슬류의 양도 현저히 적어진다. 고창천 유역과 다른 권역 정치체 간의 위계와 성장 정도의 차이를 시사한다.

정치체 간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肩部에 菱形紋(마름모꼴)을 압날한 옹관이 유행한 점이 주목된다. 만동, 봉덕, 남산리 유적 등 고창천 유역에서 높은 비율로 확인되며 성남리Ⅲ, 왕촌리 등 그 외 권역에서도 일부 보인다. 영산강유역에서 옹관 견부의 문양으로 鋸齒文(톱니무늬)이 유행하였는데,[48] 고창지역에서는 거치문과 함께 능형문이 선호되어 강한 지역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49] 고창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48) 김낙중, 2009 앞 책, 128쪽.
49) 李暎澈, 2005 〈榮山江流域의 原三國時代 土器相〉 《원삼국시대 문화의 지역성과 변동》, 제2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료집, 79쪽 ; 盧美善, 2007 〈菱形紋土器 小考〉 《硏究論文集》 7, 102쪽.

지역과는 차별되는 마름모를 모티프로 한 문양이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내 정치·사회적 관계 또는 통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고창·영광지역의 정치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이루고, 정치체 간의 관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고창천 유역의 정치체로 볼 수 있다. 이들이 다른 권역에 비해 중심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외부세력과의 활발한 교류를 상정할 수 있다. 만동 유적에서 확인된 주구토광묘가 海路를 통한 금강유역과의 교류 속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일찍이 지적된 바 있다.[50] 2호 주구토광묘에서 출토된 환두도는 천안 청당동, 공주 장원리 등 금강유역 주구토광묘 출토품과 흡사하다.[51] 한편, 한강유역과의 교류를 시사하는 자료도 확인된다. 만동 유적에서 출토된 옹관은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저장용 대옹과 형태적 유사성이 보인다.[52] 특히 [그림 4]와 같이 만동 8호묘 1호 옹관과 풍납토성 경당지구 중층 101호 유구 출토 대옹은 내부에 十字(+)를 새긴 능형문을 두 줄로 시문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여, 두 지역이 밀접하게 교류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되고 있다.[53] 고창천 유역의 정치체는 서해 연안을 통해 외부와 교류하기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구슬류, 철기류를 입수하면서 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풍납토성 경당지구 중층 101호 출토 대옹　　② 만동 유적 8호묘 1호 옹관

[그림 4] 풍납토성과 만동 유적 능형문 형태 비교

50) 한수영, 2003 앞 논문, 34쪽.
51) 이보람, 2009 〈금강유역 원삼국~삼국시대 환두도 연구〉 《韓國考古學報》 71, 88쪽 ; 국립전주박물관, 2009 《마한, 숨쉬는 기록》, 76~77쪽.
52) 김낙중, 2009 앞 책, 140~141쪽.
53) 노미선, 2011 〈전북지역의 유공광구소호〉 《고대인의 바람과 다짐이 깃든 성스러운 토기 유공소호》, 진인진, 117~118쪽.

그렇다면 이 일대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정치체를 《三國志》에 기록된 마한 '國'에 구체적으로 대응시킬 수 있을까? 《三國志》에 나열된 50여 개 국명의 위치 비정은 마한 관련 고증의 핵심으로서 꾸준히 시도되었다. 초창기 연구에서의 위치 비정은 주로 후대의 지리지에서 발음이 유사하거나 표기 방식에 상관성이 있는 지명을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유적의 분포 양상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기본적인 방법론이 음운학적 유사성을 통한 비정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54] 그런데 '牟盧卑離國'이 고창지역으로 비정된다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으며,[55] 그 근거가 되는 후대 지명 '毛良夫里'와의 音相似 역시 납득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창천 유역에서 성장한 정치체를 모로비리국과 연결지을 수 있을 것이다.

모로비리국과 관련하여 《晉書》裨離等十國傳 기사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 太熙 초에 다시 牟奴國帥 逸芝惟離·模盧國帥 沙支臣芝·于離末利國帥 加牟臣芝·蒲都國帥 因末·繩余國帥 馬路·沙樓國帥 釤加가 각각 正使와 副使를 보내어 東夷校尉 何龕에게 나아가 귀화하였다.[56]

이 기사는 전체적인 국명, '裨離', '臣芝' 등의 어감이 《三國志》 마한 국명에 붙는 '卑離'와 그 수령 호칭 '臣智'와 유사하며, 《晉書》 東夷 馬韓傳[57]과 武帝紀[58]에 같은 해 마한이 동이교위에 견사한 사실이 확인된

---

54) 전진국, 2020 〈馬韓 개념과 '國'에 대한 기록〉 《百濟學報》 31, 18~19쪽.

55) 李丙燾, 1936 〈三韓問題의 新考察(三) -辰國及三韓考-〉 《진단학보》 4, 52쪽 ; 千寬宇, 1989 《古朝鮮史·三韓史硏究》, 一潮閣, 405~406쪽 ; 박순발, 2013 〈유물상으로 본 백제의 영역화 과정〉 《백제, 마한과 하나되다》, 한성백제박물관, 126~127쪽.

56) 《晉書》 卷97 列傳 第67 東夷 裨離等十國, "至太熙初, 復有牟奴國帥逸芝惟離·模盧國帥沙支臣芝·于離末利國帥加牟臣芝·蒲都國帥因末·繩余國帥馬路·沙樓國帥釤加, 各遣正副使詣東夷校尉何龕歸化."

57) 《晉書》 卷97 列傳 第67 東夷 馬韓, "太熙元年, 詣東夷校尉何龕上獻."

다는 점에서 마한 또는 삼한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59] 이후 이 기사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通志》마한전에 付注되어 있으며, 《太平御覽》에 인용된 〈晉起居注〉에는 卑離國이 추가되어 '모노 등 7국'으로 기록되어 있어 《晉書》무제기의 '東夷七國'과 일치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60] 따라서 이를 3세기 후반 마한의 '國'들이 함께 西晉과 교섭한 사실을 보여주는 기사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61] 이때 '牟奴國'이 '牟盧卑離國'과 유사하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어,[62] 고창천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정치체가 서진과의 대외교섭에 다른 지역 정치체들과 함께 참여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모로비리국과 같은 한반도 중부 이남의 마한 '國'이 요동에 설치된 동이교위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낙랑군의 협조를 받거나,[63] 서해 연안 항로를 이용해야 했을 것이다.[64] 만동과 남산리 유적에서 출토되는 수정제 다면옥과 금박유리구슬은 낙랑과 관련된 유물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65] 활발한 대외교섭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

58) 《晉書》 卷3 帝紀 第3 武帝, "太熙元年 二月辛丑 東夷七國朝貢."

59) 임기환, 2000 〈3세기~4세기초 위(魏)·진(晉)의 동방 정책 -낙랑군·대방군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6, 28~29쪽 ; 권오영, 2001 〈백제국(伯濟國)에서 백제(百濟)로의 전환〉 《역사와 현실》 40, 45~47쪽.

60) 윤용구, 2014 〈『진서』동이東夷 조공기사朝貢記事의 재검토〉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331쪽.

61) 다만 모노국 등 6국의 이름 중 《三國志》의 마한 국명과 전혀 다른 경우가 있고, 臣芝 등의 표현이 맨 앞의 牟奴國帥에는 붙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마한 소국으로 볼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견해도 있다(임동민, 2018 〈『晉書』 馬韓 교섭기사의 주체와 경로〉 《한국고대사연구》 89, 14~15쪽).

62) 권오영, 2001 앞 논문, 47쪽.

63) 윤용구, 2005 〈고대중국의 동이관(東夷觀)과 고구려 -동이교위(東夷校尉)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5, 83쪽.

64) 박순발, 2016 〈백제의 해상교통과 기항지 -對 中國 航路를 중심으로-〉 《百濟學報》 16, 6쪽.

65) 權五榮, 2004 〈物資·技術·思想의 흐름을 통해 본 百濟와 樂浪의 교섭〉 《漢城期 百濟의 물류 시스템과 對外交涉》, 학연문화사, 228~229쪽.

2. 한성기 백제의 남진과 고창·영광지역의 변화

마한의 한 구성분자였던 伯濟國은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성장하여 명실상부한 고대국가로 성장한다. 특히 주변의 마한 세력들을 통합함과 동시에, 중국과의 대외교섭에서도 돌출적인 위상을 갖게 되는 등 질적인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중엽 사이의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고대국가로 성장한 백제가 남방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백제'로의 통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日本書紀》神功皇后 49년의 사건이다.

> 49년 봄 3월 荒田別과 鹿我別을 장군으로 삼아 久氐 등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건너가 卓淳國에 이르러 新羅를 치고자 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말하길, "군사가 적어 신라를 깨뜨릴 수 없으니, 다시 沙白·蓋盧를 보내 군사를 늘려주도록 요청하십시오."라 하였다. 곧 木羅斤資·沙沙奴跪【이 두 명은 그 성을 알 수 없는 사람인데, 다만 木羅斤資는 백제 장수이다.】에게 정병을 이끌고 沙白·蓋盧와 함께 가도록 명하였다. 함께 탁순에 모여 신라를 격파하고, 이로 인하여 比自炑·南加羅·喙國·安羅·多羅·卓淳·加羅 7국을 평정하였다. 이어 군대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 古奚津에 이르러 南蠻 忱彌多禮를 도륙하여 백제에게 주었다. 이에 그 왕 肖古와 왕자 貴須 또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이때 比利辟中布彌支半固四邑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이에 백제왕 부자와 荒田別·鹿我別·木羅斤資 등이 함께 意流村【지금은 州流須祇라고 한다.】에서 함께 모여 서로 보고 기뻐하며 후하게 대접하여 보냈다. 오직 千熊長彦과 백제왕이 백제국에 이르러 辟支山에 올라 맹세하고, 다시 古沙山에 올라 함께 磐石 위에 앉았다. 이때 백제왕이 맹세하기를, "만약 풀을 깔아 자리를 삼으면 불에 탈까 두렵고, 또 나무를 가지고 자리를 삼으면 물에 떠내려갈

까 두렵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앉아 맹세하는 것은 오래도록 썩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니, 이에 지금 이후로는 천년만년 영원토록 끊이지 않고 늘 西蕃이라 칭하며 봄가을로 조공하겠다."라고 했다. 곧 千熊長彦을 거느리고 도읍 아래에 이르러 후하게 예우를 더하고, 久底 등을 딸려서 보냈다.[66]

이 기사를 비롯한 《日本書紀》 백제 관계 기사는 주체를 백제로 바꾸어 보는 '주체교체론'과 神功紀부터 雄略紀까지의 연대를 2周甲(120년) 늦추어야 《三國史記》의 연대와 일치한다는 '2주갑 인하설'에 의거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67] 신공기 49년(249년)을 2주갑 인하하면 369년, 즉 백제 근초고왕 24년이 되어 '그 왕 肖古와 貴須'라는 표현과 합치한다. 따라서 이 기사는 근초고왕 대 백제의 마한 잔여세력 정벌과 남방 경략을 기술한 사료로 이해되어왔다.

물론 이러한 통설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3주갑(180년)을 인하하여 429년(비유왕 3년)의 사건으로 보거나,[68] 6세기 전반 백제가 가야지역으로 세력권을 확장한 사실을 마치 일본이 주체가 되어 가야제국을 평정한 것처럼 소급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견해[69]가 대표적이다. 한편 《日本書紀》는 철저한 사료 비판의 바탕 위에서 이용되어야 함을 강조

---

66) 《日本書紀》 卷9 氣長足姬尊神功皇后 "卌九年春三月, 以荒田別·鹿我別爲將軍, 則與久氐等, 共勒兵而度之, 至卓淳國, 將襲新羅. 時或曰, "兵衆少之, 不可破新羅, 更復, 奉上沙白·蓋盧, 請增軍士." 卽命木羅斤資·沙沙奴跪【是二人, 不知其姓人也. 但木羅斤資者, 百濟將也.】 領精兵, 與沙白·蓋盧共遣之. 俱集于卓淳, 擊新羅而破之, 因以, 平定比自㶱·南加羅·喙國·安羅·多羅·卓淳·加羅七國. 仍移兵, 西廻至古奚津, 屠南蠻忱彌多禮, 以賜百濟. 於是, 其王肖古及王子貴須, 亦領軍來會. 時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 自然降服. 是以, 百濟王父子及荒田別·木羅斤資等, 共會意流村【今云州流須祇】, 相見欣慼, 厚禮送遣之. 唯千熊長彦與百濟王, 至于百濟國, 登辟支山盟之, 復登古沙山, 共居磐石上. 時百濟王盟之曰, "若敷草爲坐, 恐見火燒, 且取木爲坐, 恐爲水流. 故居磐石而盟者, 示長遠之不朽者也. 是以, 自今以後, 千秋萬歲, 無絶無窮, 常稱西蕃, 春秋朝貢." 則將千熊長彦, 至都下厚加禮遇, 亦副久底等而送之."

67) 노중국, 2018 《백제 정치사》, 일조각, 35~36쪽.

68) 山尾幸久, 1989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119~125쪽 ; 김기섭, 2000 《백제와 근초고왕》, 학연문화사, 163~166쪽.

69) 연민수, 2003 《古代韓日交流史》, 혜안, 173~176쪽.

하면서, 특정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사료로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70] 그러나 3주갑 인하설의 경우 《日本書紀》 應神紀 25년조에 나오는 목라근자의 아들 木滿致와 《三國史記》 백제본기에 475년 웅진 천도 시 문주왕의 補臣으로 등장하는 木劦滿致를 동일 인물로 전제했을 때 그의 나이가 100세가 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이며, 이를 따를 경우 구이신왕 대 목만치가 국정을 전횡하였다는 기사와도 어긋난다.[71] 3주갑 인하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목만치와 목협만치의 동일 인물 여부와 그의 출생 시점에 대한 합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日本書紀》 欽明紀에 백제 성왕이 근초고왕과 근구수왕 대에 가야와 통교를 맺은 사실을 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72] 6세기 전반의 일을 소급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근초고왕 대 적극적으로 대외 팽창이 시도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하면,[73] 신공기의 백제 관련 기사는 4세기 후반 근초고왕 대의 역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벌의 대상이었던 古奚津과 忱彌多禮는 강진·해남 일대로 비정하는 것이 유력한데, 4세기 후엽 강진·해남·장흥 등 남서해안 지역에 주거지의 화재폐기가 집중되는 현상이 주목된다. 각 지역이 개별적인 취락 문화를 영유하고 있었음에도, 화재폐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특히 강진 양유동 유적에서는 모든 가재도구와 식량이 잔존할 정도로 일시에 폐기되고 있어, 외부세력과의 갈등, 즉 백제의 침미다례 도륙의 고고학적 증거로 해석된 바 있다.[74] 강진 양유동 유적을 비롯한 화재폐기 취락들이 침미다례의 구성분자라고 본다면 이러한 추정도 설득

---

70) 정동준, 2018 〈백제 근초고왕대의 마한 영역화에 대한 사료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91, 109~110쪽.

71) 노중국, 2012 〈문헌기록을 통해 본 영산강 유역 -4~5세기를 중심으로-〉 《백제와 영산강》, 학연문화사, 52~53쪽.

72) 《日本書紀》 卷19 天國排開廣庭天皇 欽明天皇 2年, “聖明王曰, 昔我先祖速古王·貴首王之世, 安羅·加羅·卓淳旱岐等, 初遣使相通, 厚結親好, 以爲子弟, 冀可恒隆.” 이는 神功紀 46年에 보이는 卓淳과 백제의 통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3) 金英心, 1997 앞 논문, 27쪽.

74) 정일·최미숙, 2013 〈강진 양유동취락의 특징과 고대사적 의미〉 《湖南考古學報》 45, 148~151쪽.

력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신공기 49년의 연대를 369년으로 보는 견해를 취하고 근초고왕 대 백제의 남진을 보여주는 기사로 해석하겠다.

백제의 남진이 고창·영광지역 정치체에 끼친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는 구절은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 自然降服”이다.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의 독법과 위치 비정 역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는데, 比利·辟中·布彌支·半古 四邑으로 끊어 읽어 4읍으로 보는 설과,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 邑으로 끊어 읽어 5읍으로 보는 설로 대별된다.[75] 그 위치 역시 [표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충남에서 전남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비정이 이루어졌다.[76]

[표 5]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의 위치 비정

4읍설	末松保和	李丙燾	노중국	5읍설	千寬宇	全榮來	金英心
比利	전주, 나주	불명	영산강유역 (구체적 위치는 불명)	比利	부안	보성	군산
辟中	김제	보성		辟中	김제	보성	김제
布彌支	공주	나주		布彌	정읍	나주 복룡	불명
				支半	부안	부안, 태인	불명
半古	나주 반남	불명		古四	고부	고부	고부

이때 이 지역이 항복한 후 근초고왕 부자와 倭將 千熊長彦이 맹세를 한 벽지산과 고사산이 각각 김제와 고부로 비교적 확실하게 비정되므로, 4읍(또는 5읍)의 위치 역시 전북 서남부 일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77] 그리고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이 정치적 결정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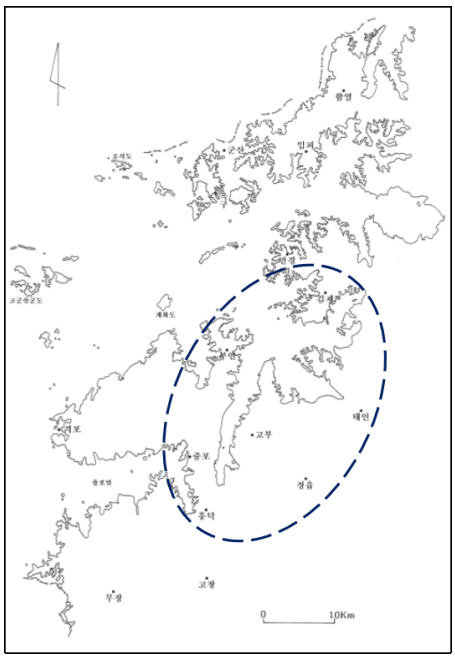
75) 정재윤, 2013 〈문헌자료로 본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 《百濟學報》 9, 8쪽.

76) 末松保和, 1961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 李丙燾, 1936 앞 논문 ; 노중국, 2018 앞 책 ; 千寬宇, 1989 앞 책 ; 全榮來, 1985 〈百濟 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正音文化社 ; 金英心, 1997 앞 논문.

77) 근초고왕이 벽지산과 고사산에 오른 것을 이 지역이 369년 이전에 이미 백제의 영역에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여, 4읍의 위치를 전북 일대로 보는 견해는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존재한다(노중국, 2018 앞 책, 218~219쪽). 그러나 어떤 지역의 정복을 기념하는 차원의 맹세를 한다면, 이미 백제의 영역이었던 지역보다는 신정복지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김영심, 2003 앞 논문, 98~99쪽)가 더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약간 성격이 다를 수는 있으나, 羅唐

께 내리는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일한 지역권 또는 문화권을 이루는 인접 지역 내에서 비정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동진강 연안의 지역들이 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김제 남부, 부안, 고부, 태인, 고창 흥덕에 이르는 지역이다. 아래의 [그림 5]와 같이 현재보다 훨씬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왔을 舊해안선을 고려하면,[78] 이들 지역은 서해안에 연하여 위치하고 있다. [표 5]의 고지명에 기초한 위치 비정 결과와도 일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고고학적으로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의 위치를 탐색한 결과 김제, 부안, 고부, 정읍, 고창 흥덕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본 견해도 참고된다.[79]



[그림 5] 동진강 하구권
구해안선과 4읍의 추정 범위
(홍금수, 2008 편집 후 재인용)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킨 후 웅진에서 두 차례 맹세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78) 홍금수, 2008 《전라북도 연해지역의 간척과 경관변화》, 국립민속박물관, 134쪽.

79) 김낙중, 2013a 〈고고학 자료로 본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의 위치〉 《百濟學報》 9.

즉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 自然降服”은 4세기 후엽 근초고왕 대에 전북 서남부의 서해 연안 세력과 백제 중앙의 정치적 관계가 형성되고, 이 지역이 백제 국가의 일부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일대에 백제 중앙과 관련된 물질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것은 4세기 후엽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이다. 고창 흥덕의 사례를 들어보면, 대체로 5세기 중엽 이후가 되어야 백제 중앙과 관련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석교리 유적에서는 현지의 방형계 주거지와는 구별되는 평면형태 원형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 내부에서 배, 삼족기 등의 백제 토기가 출토되었다.[80] 신덕리Ⅲ-B 유적에서도 평면 원형 주거지, 평행선문이 타날된 발형토기 등이 등장하여 백제 중앙의 물질문화를 보인다.[81] 5세기 중엽 경으로 추정되는 남당리 고분은 현지의 분구묘 전통 위에 석축묘를 축조하였는데, 광구장경호와 같은 백제 토기를 부장하고 관못과 꺾쇠로 결구한 목관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백제의 영향력을 읽을 수 있다.[82] 5세기 중엽이 되어서야 비로소 백제 중앙과 관련된 주거지, 분묘, 토기 등 생활문화와 묘·장제의 諸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먼저 이 지역에 대한 백제의 지배 방식이 적극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관련하여 “自然降服”이라는 사료상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침미다례가 “南蠻”으로 멸칭되고, 그에 대한 군사 작전이 “屠戮”이라고 표현된 것과는 분명 그 어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4읍(또는 5읍)이 근초고왕의 남진에 대해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며 항복하였거나 비교적 손쉽게 확보되었음을 반영하는 표현으로 가정한다면, 백제 중앙의 입장에서는 굳이 강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이들을 통제하거나 기존의 세력 기반을 해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이 경우 자연히 백제 중앙과 관련된

80) 안효성, 2009 《高敞 石橋里·五湖里 遺蹟》, 전북문화재연구원, 61～65쪽.
81) 최완규·조규택·양영주, 2006 앞 책, 185～188쪽.
82) 李康承, 2000 〈분구묘에 대한 하나의 고찰 -전북 고창군 흥덕면 용반리 회맹단 고분을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 12 ; 국립전주박물관, 2004 《기증문화재 특별전 전북인의 마음》, 104～109쪽.

물질문화의 유입이 더디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두 번째로 4세기 후엽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당시 백제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은 북방 고구려의 침략에 대한 대비였다. 실제로 근초고왕의 남진이 이루어지고 6개월 후인 369년 9월 고구려와의 전쟁이 시작되고, 5세기 전반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이를 고려하면 남방에 대한 통제나 세력 재편에 힘쓸 여력이나 필요가 없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日本書紀》 應神紀 8년 기사[83]에 인용된 百濟記의 "침미다례 등을 뺏겼다"는 구절을, 4세기 말 아신왕 대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369년 남정의 산물'에 대한 통제력 상실로 해석한 견해가 참고된다.[84]

마지막으로 정치적 관계의 변화와 물질문화의 변동 간 상관관계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지배 방식의 정도 또는 국제정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관계의 변화에 따른 물질문화 변동에 시간적 격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백제의 영역화나 정치적 관계의 강화는 현지의 기층문화가 백제 중앙의 정형화된 문화로 대체되는 과정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4세기 후엽이라는 특정 시점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도 정치적 관계의 변화에 따른 물질문화의 변동이 반드시 즉각적으로 수반된다고 가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더불어, 백제 중앙에서 물질문화가 정형화되는 시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85] 백제 중앙과 그 외 지역에서 보이는 물질문화의 차별성을, 백제화의 미숙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상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 自然降服"을 근초고왕의 남진을 계기로 김제에서 고창 흥덕에 이르는 서해 연안 세력이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 혹은 그렇게 인식되게 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렇다면 보다 내륙에 위

---

83) 《日本書紀》卷10 譽田天皇應神天皇 8年, "百濟記云, 阿花王立無禮於貴國, 故奪我枕彌多禮 及峴南·支侵·谷那·東韓之地. 是以遣王子直支于天朝, 以脩先王之好也."

84) 김병남, 2020 〈백제의 '전북지역' 진출 과정과 추이 변화〉 《전북사학》 58, 130~131쪽.

85) 김기섭, 2021 〈4~5세기 백제의 인구와 남방영역〉 《한국고대사연구》 102, 261~262쪽.

치하지만 백제의 확대된 영향력을 직접 대면하게 된 고창·영광지역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다.

만동 유적 단계부터 백제 중앙의 물질문화가 단편적으로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흑색마연토기 또는 흑회색 슬립(slip)을 입히고 器面을 마연하여 광택을 유도한 토기이다. 해당 토기는 10호묘 1호 옹관 출토 천발, 10호묘 5호 옹관 출토 광구평저호, 12호묘 1호 토광 출토 직구호 등이 있다.[86] 흑색마연토기는 3세기 후반 한강유역에 등장하여 백제의 고대국가 형성을 보여주는 표지적 유물로 이해되고 있다.[87] 만동 유적에서 흑색마연토기가 출토된 분구묘들은 이중구연호를 통해 보았을 때 대체로 4세기 전반으로 연대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근초고왕 대 이전에 이미 백제 중앙과 접촉·교류했음을 상정할 수 있다.[88]

4세기 후반의 선동 유적에서는 5기의 분구묘가 확인되었는데, 이전 단계의 분구묘에 비해 더욱 대형화되고 분구 형태 역시 길어진(長梯形) 양상이다. 그중 2호분과 3호분에서 분구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구의 연접과 중복 현상도 확인된다. 출토유물 가운데 유리구슬이 6,000점에 가까운 압도적인 수량으로 출토되었으며, 금박유리구슬도 7점 포함되어 있다.[89] 선동 유적에서 최종적으로 소비·부장된 유리구슬의 수입 주체가 백제 중앙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백제가 東晉과의 교섭 창구를 일원화한 시점에서 고창지역 정치체가 수많은 유리구슬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

86) 金建洙·李永德, 2004 앞 책 ; 徐賢珠, 2006 《榮山江 流域 古墳 土器 硏究》, 學硏文化社, 190쪽 ; 이문형, 2020 앞 논문, 146~1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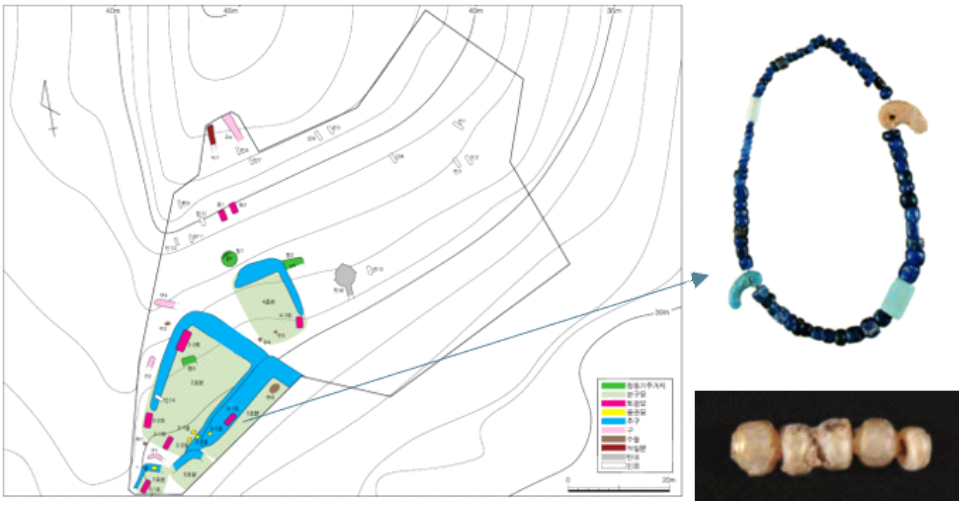
87) 朴淳發, 2001 《漢城百濟의 誕生》, 서경문화사, 107~112쪽.

88) 특히 12호묘 1호 토광에서 출토된 직구호는 태토나 마연기술, 기형 등이 백제 중앙의 것과 매우 흡사하여 백제 중앙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이문형, 2020 앞 논문, 146쪽). 반면 남상원은 이 흑색마연토기가 전반적인 제작기술에서 백제 중앙의 것과 비슷하지만, 만동 유적의 분묘 양상과 출토유물에서 백제와의 연관성이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현지에서 제작한 것으로 분류하였다(남상원, 2013 〈제작 기술을 통해 본 백제 흑색마연토기의 의미〉 《韓國考古學報》 89, 130~131쪽).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만동 유적 출토 옹관의 형태와 문양을 통해 한강유역과의 교류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백제 중앙에서의 제작품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만동 유적의 중심 연대를 고려하였을 때 정치적 관계보다는 지역 차원의 교류 속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된다.

89) 湖南文化財硏究院, 2013 《高敞 仙洞遺蹟》.

고 보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90]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3호분 1호 토광에서 출토된 유리구슬의 색상이다. 다른 유구와는 달리 적갈색 유리구슬이 한 점도 확인되지 않고, 남색 위주의 이질적인 색상 구성을 보인다. 이러한 색상 변화는 백제 문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다.[91] 선동 3호분 1호 토광에서 확인되는 유리구슬의 색상 변화는 이 지역 정치체가 백제가 주도하는 대외교역망에 포함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그림 6] 선동 유적 3호분 1호 토광 출토 유리구슬

봉산리 황산 유적은 4세기 중엽부터 약 100년 가까이 지속된 대단위 취락 유적으로, 주거지 104기, 수혈 82기, 구 47기, 도로 유구 2개소 등이 확인되었다. 유적이 성행하기 시작하는 것은 4세기 후엽으로, 구상유구가 주거군을 감싸고 내부를 구획하며, 주거지의 면적은 전반적으로 증가한다.[92] 주거군 사이의 넓은 空地는 취락 구성원 간 사회적 관계와 교류를

90) 박준영, 2016 〈한국 고대 유리구슬의 생산과 유통에 나타난 정치사회적 맥락〉 《韓國考古學報》 100, 164쪽.

91) 金美齡, 2008 〈韓半島 西南部地域의 玉 硏究 -3~5世紀 墳墓遺蹟 出土 玉을 中心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2~74쪽 ; 김미령·김승옥, 2018 〈장신구〉 《마한 고고학개론》, 진인진, 307쪽.

92) 대한문화재연구원, 2015 《高敞 蜂山里 黃山遺蹟 Ⅱ》 ; 정일, 2015 〈삼국시대 황산취락의 경관 검토〉 《高敞 蜂山里 黃山遺蹟 Ⅲ》, 대한문화재연구원, 1034~

촉진하는 광장으로 해석되기도 했다.[93] 4세기 후반부터 주거군이 구상유구로 구획되고, 개별 주거지가 대형화되는 등 취락의 질적·양적 변화가 확인되는 것은 백제 중앙과의 관계 형성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6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무개고배, 평저광견호 등의 한성 양식 토기,[94] 9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아궁이틀을 통하여 백제 중앙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다.

이처럼 4세기 후반 이후부터 5세기 전엽까지의 양상은 이전 단계보다 고창천 유역에 백제 중앙의 물질문화가 산발적으로 유입되지만, 정치적 관계가 강하게 개재된 착장형 위세품과 같은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정치적 관계를 말해주는 유물이 부재하고, 관련 기록도 없어 백제 중앙과의 관계를 단정하기는 힘들다. 다만 앞서 언급한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 自然降服"을 계기로 한 백제 중앙과의 대면이라는 역사적 맥락, 그리고 5세기 중엽부터 봉덕리 고분군에 백제 중앙과의 긴밀한 정치적 관계를 보여주는 각종 위세품이 망라되는 현상을 고려한다면 이전 단계와 같은 지역 차원의 교류로만 해석하기에도 충분치 않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차원의 교류에서 중앙-지방의 정치적 관계로 변화해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1036쪽.

93) 趙誠嬉, 2021 앞 논문, 167~169쪽.

94) 김낙중, 2017 앞 논문, 156쪽.

3. 봉덕리 고분군 축조와 위세품 사여의 의미

5세기 중엽 고창·영광지역을 포함한 영산강유역에서는 이전의 제형 분구묘와는 다른 분형과 규모, 축조 기술을 적용한 高塚이 축조되기 시작한다.[95] 고총 축조에는 상당한 물적·인적 자원이 동원되며, 선진적인 토목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축조 집단의 내적 역량이 필수적이다. 고창·영광지역에 축조된 방대형 고총이 봉덕리 고분군이다. 이 고분군을 축조한 집단은 만동·봉덕 - 선동·황산 유적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갖춘 전통적인 지역 유력 세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봉덕 방형추정분은 현재 분구는 유실되어 남아 있지 않지만, 주구의 배치를 통해 볼 때 남북 25m, 동서 17.5m 규모의 방대형 분구를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된다.[96] 주구 내에서 유공광구소호, 개배, 고배 등이 주요 기종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이전의 제형 분구묘 단계와 구분된다.

본격적인 고총의 축조는 봉덕리 고분군에서 확인된다. 총 4기의 고분이 남-북 방향으로 열을 지어 분포하고 있다. 그중 발굴조사된 1호분은 동서 장축 63m, 남북 단축 52m, 높이 7m 내외 규모의 방대형 고분이다. 자연 구릉의 끝부분을 분리하여 기저부를 마련하고, 그 위에 성토하여 분구를 조성하였다.[97] 1호분과 160m 정도 이격되어 있는 3호분 역시 적어도 3m 이상 대규모 성토가 이루어진 방대형 고총으로 파악되고 있다.

봉덕리 1호분은 매장주체시설로 횡혈식석실을 수용하였다. 분구 대상부 중앙에 횡혈식석실인 5호 석실이 가장 먼저 축조되고, 이후 4기의 석실과 2기의 옹관을 추가로 매납하였다. 1·3·5호 석실은 현실과 연도를 갖춘 횡혈식석실, 4호 석실은 연도가 없는 수혈식석실이다.[98] 4세기 후

---

95) 한옥민, 2019 《영산강유역 고분의 축조 연구》, 진인진, 146~1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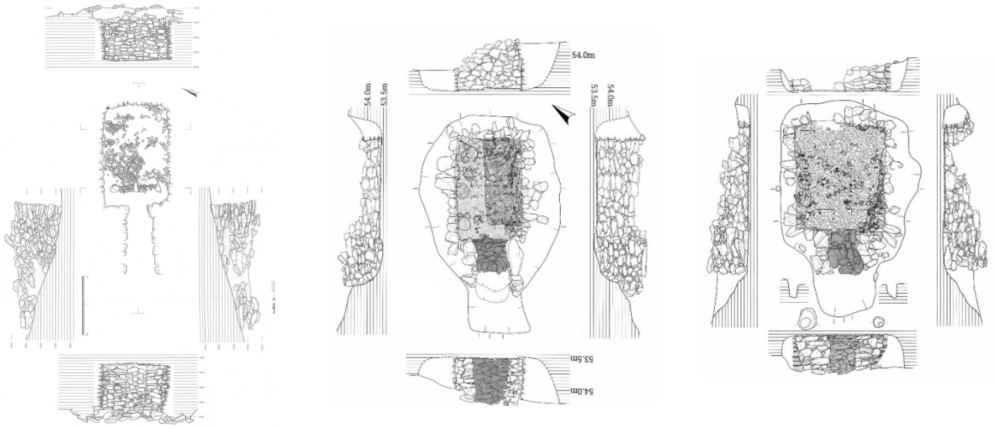
96) 김건수·노미선·양해웅, 2003 《高敞 鳳德遺蹟Ⅰ -방형추정분·구-》, 湖南文化財硏究院, 109쪽.

97)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6 앞 책.

98) 4호 석실은 연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규모나 축조 수법이 횡혈식석실인 5호 석실과 매우 유사하여 석곽이 아닌 수혈식의 '석실'로 분류·명명되었다(위 책, 244~245쪽).

반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도입된 백제 한성기 횡혈식석실이 점차 지방으로 확산하는 과정은 중앙에서 지방의 단선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상호작용 속에서 수용과 변화를 겪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99] 이러한 점에서 횡혈식석실의 축조는 백제 중앙과 현지 유력 세력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자료이다.

분구 성토와 함께 차례로 축조되는 5호 석실과 4호 석실은 한성기 백제 지방사회에 조영되는 고분군 가운데 금강 유역의 유력 세력이었던 공주 수촌리 고분군 석실과 흡사하다.[100] 5호 석실은 평면형태 장방형의 현실에 중앙에 연도를 부가한 형태이다. 현실 모서리의 각을 죽여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연도는 묘도 쪽으로 갈수록 八자형으로 넓어지고 점차 높아져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장방형의 현실 평면에 바닥에 돌을 깔았고, 연도는 중앙에 설치되면서 묘도가 경사져 있는데 이러한 요소는 수촌리 Ⅱ-4호, Ⅱ-5호 석실에서 계보를 찾을 수 있다.[101]



① 고창 봉덕리 1호분 5호 석실　② 공주 수촌리 Ⅱ-4호 석실　③ 공주 수촌리 Ⅱ-5호 석실

[그림 7] 봉덕리 1호분과 수촌리 고분군 횡혈식석실 비교

99) 朴信映, 2019 〈백제 한성기 횡혈식석실묘의 도입과 확산과정〉 《百濟硏究》 70, 74쪽.

100) 김낙중, 2017 앞 논문, 154쪽 ; 이문형, 2020 앞 논문, 62쪽.

101) 김낙중, 2013b 〈백제 묘제 연구에서 공주 수촌리 고분군이 갖는 의미〉 《수촌리유적의 고고학적 성과와 의의》, 공주 수촌리유적 발굴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75쪽.

5호 석실의 축조는 봉덕리 고분군 축조 집단이 횡혈식석실이라는 새로운 묘제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과정이었다. 이때 백제 중앙과의 관계와 함께 금강 유역의 강력한 지방 세력 중 하나였던 수촌리 고분군 세력과의 접촉 혹은 상호작용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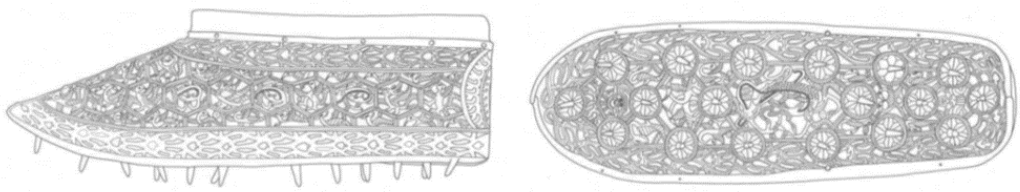
4호 석실은 이미 동일 분구 내에 횡혈식석실(5호)이 수용된 이후 축조되었음에도 연도가 부재한다. 연도의 부재라는 점에서는 석곽에 가깝지만, 현실의 축조 기법에서 횡혈식석실과 상통하는 요소도 확인된다. 특히 벽석의 상단부로 갈수록 네 벽을 맞물리게 안으로 약간씩 內頃하여 축조하는 점은 횡혈식석실의 궁륭상 천장을 의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4호 석실은 수혈식 묘제와 횡혈식 묘제의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석축 묘제와 횡혈식 장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시행착오와 창안을 보여준다. 4호 석실의 계보 역시 공주 수촌리 Ⅱ-8호 석곽[102] 또는 공주 분강·저석리 12~14호[103] 등 한성기 금강유역에 조영되었던 석실과 연결되고 있다. 봉덕리 1호분에 횡혈식석실이 도입되는 과정은, 백제의 지방으로 확산된 중앙의 묘제가 지방으로 재파급되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봉덕리 1호분에서는 각각 금동식리와 중국제 청자반구호로 대표되는 착장형 위세품과 외래 기성품도 출토되었다. 먼저 금동식리는 4호 석실에서는 완형으로, 5호 석실에서는 바닥판 일부만이 출토되었다. 석실의 축조 순서와 식리의 형태를 볼 때 5호 석실에 부장된 식리가 더 이른 시점에 제작되어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5호 석실 출토 식리 편은 능형문이 透彫된 금동판과 스파이크만이 확인된다. 바닥판에 능형문을 투조한 백제 금동식리는 화성 요리 1호 목곽, 연기 나성리 KM-004 목곽,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공주 수촌리 Ⅱ-1호 목곽 출토품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금동식리는 대체로 5세기 1/4~2/4분기로 편년되고 있다.[104] 5호 석실이 분구 성토와 함께 축조되었음을 고려하면, 5호 석실 출토 금

102) 위 논문, 69~74쪽.
103) 朴信映, 2019 앞 논문, 69쪽.
104) 이문형, 2015 〈제작기법과 문양을 통해 본 백제 금동신발의 편년〉 《중앙고고연구》 18, 82~83쪽.

동식리는 5세기 중엽으로 위치 지을 수 있다.

4호 석실의 금동식리는 피장자의 발치에 해당하는 서단벽에서 약간 떨어진 지점에 비스듬히 뉘어진 채로 출토되었다. 우측 신발 내부에서 직물과 뼈가 확인되어 피장자의 발에 착장하여 부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좌우 양 측판과 바닥판으로 구성되며, 각 판은 리벳으로 결구하였다. 추가로 목깃을 덧대었으며, 바닥판에는 18개의 스파이크가 부착되었다. 측판과 바닥판에 각종 문양이 장식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투조하였지만 세부적인 표현에서 蹴彫 기법도 사용되었다. 측판은 가운데 부분을 육각형으로, 그 위와 아래는 오각형으로 구획하고 내부에 용, 인면조신, 새(雙鳥 포함) 문양을 시문하였다. 측판 하단과 바닥판은 스페이드, 능형문 같은 기하학적 문양으로 외연을 구사하고 내부에 연화문, 용, 새, 인면조신, 괴수상 등을 장식했다.[105] 형태와 제작기법에서 나주 복암리 정촌 1호분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며, 한성기 백제의 금속공예 기술의 절정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106]



[그림 8]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출토 금동식리(우측)

금동식리는 장식성은 뛰어나지만 지나치게 크고 너무나 허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실용품이 아닌 장송의례 용품이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07] 장송의례 용품으로 제작·사여된 것이라면 그 제작과 부장의 시차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108] 봉덕리 고분군 축조 집단은 적어도 5세기 중

105) 성윤길, 2020 〈고창 봉덕리 고분 출토 금동신발의 문양 특징과 의미〉 《馬韓·百濟文化》 36, 85~87쪽.
106) 김낙중, 2021 〈영산강유역권 마한 관련 유적의 최신 조사 성과와 의의〉 《湖南考古學報》 67, 155~156쪽.
107) 이한상, 2009 《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지배》, 서경문화사. 60쪽.

엽부터 한성기 후반까지 백제 중앙과 위세품으로 맺어진 긴밀한 정치적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제 중앙은 최소 두 차례에 걸쳐 봉덕리 1호분에 매장된 인물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금동식리를 사여하였다. 여기에는 망자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의미 외에도 지역의 유력한 세력인 봉덕리 고분군 축조 집단과 우호적이고 견고한 정치적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한편, 망자의 장례를 주관하는 인물은 화려하게 장식된 신발을 망자에게 신긴 채 시신을 안치하였다. 백제 중앙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임과 동시에, 그 관계를 과시하고 백제 중앙의 위신을 빌려 지역 내 영향력을 재창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봉덕리 1호분에서는 백제 중앙에서 제작한 것이 아닌, 외부에서 수입한 외래 기성품도 확인된다. 그중 4호 석실의 青瓷 盤口壺는 남동벽 모서리에 정지된 채 출토되었다. 반구호의 제작 연대는 孝建二年(455년) 銘 湖北省 武漢地區 206호묘 출토품과 비교하여 5세기 중엽으로 편년되고 있다.[109] 5세기 중엽은 백제의 對宋 외교가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특히 宋으로부터의 선진문물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시기였다.[110] 청자 반구호와 함께 출토된 청동 탁잔 역시 주조 후 녹로로 회전시키면서 횡침선을 시문하고 표면을 조정한 점에서 南朝로부터의 수입품으로 추정되며, 宋에서 출토된 탁잔과 유사성이 지적되었다.[111] 백제 중앙이 대송 외교를 통해 수입한 중국제 물품을 봉덕리 축조 집단에 사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高大한 봉덕리 고분군의 축조와 누대에 걸친 위세품의 사여는

---

108) 김낙중, 2017 앞 논문, 170쪽.

109) 土田純子, 2014 《百濟土器 東아시아 交叉編年 硏究》, 서경문화사, 62쪽 ; 이와 달리 南京 司家山 謝珙墓 출토품과 비교하여 동진 말기 또는 남조 초기인 5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정상기, 2013 〈高敞 鳳德里 出土 青磁盤口壺의 製作時期 檢討: 中國 南京市 出土品과 比較 檢討를 통해〉 《東垣學術論文集》 14, 139～140쪽).

110) 박윤선, 2008 〈백제와 송·제·양 교섭기사에 대한 고찰〉 《역사문화연구》 31, 11～12쪽

111) 이문형, 2020 앞 논문, 92쪽 ; 이한상, 2014 〈고고자료에 투영된 한성백제의 중앙과 지방〉 《백제의 왕권은 어떻게 강화되었나》, 한성백제박물관, 96쪽.

3세기대부터 이어진 지역 정치체의 내재적 성장·발전의 결과이자, 백제 중앙과의 정치적 관계가 결합된 표상이다. 특히 누대에 걸쳐 최상위의 위세품을 입수하며 백제 중앙으로부터 대우받는 모습은 원주 법천리, 천안 용원리, 공주 수촌리 등 한성기 백제의 유력 지방사회와 상통한다. 이러한 점에서 백제 중앙에 있어 봉덕리 고분군 축조 집단을 위시한 고창·영광지역의 위상은 '중요한 지방 거점이면서 전략적 요충지'[112]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성기 백제 중앙의 입장에서 봉덕리 고분군 축조 집단, 그리고 고창·영광지역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우선적으로 노령산맥 이북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력 행사와 강화라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연스럽게 노령산맥의 북서사면과 맞닿아있는 고창·영광지역과의 관계가 주요하였다. 지역 내 가장 중심적인 세력을 가진 봉덕리 고분군 축조 집단을 매개로 고창·영광지역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노령산맥 이북 지역을 효과적으로 장악하고자 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고창·영광지역이 전통적으로 일본열도와의 교류에서 거점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음이 주목된다. 일본 福岡縣 西新町遺蹟의 주거지에서 만동 유적 출토품과 매우 흡사한 이중구연호가 출토되어 4세기대 九州지역과 고창지역의 교류를 시사한다.[113] 고창을 포함한 호남 서해안 일대에서 북부 규슈로의 이주 가능성도 제시된 바 있다.[114] 이 지역은 5세기대에도 왜계 문물이 풍부하게 확인되는 지역으로 주목받아왔다. 특히 봉덕 유적이나 자룡리 유적에서 5세기 중반부터 말까지로 편년되는 TK208~TK47 단계의 須惠器 배, 유공광구소호 등이 다수 출토되었다.[115]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에서 출토된 小壺裝飾유공광구소호와 玲附器臺 역시 일본에서 반입된 스에키의 일종이다.[116] 고창·영광지역은 서

112) 권오영, 2007 〈고고자료로 본 지방사회〉 《百濟의 政治制度와 軍事》,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45쪽.
113) 趙圭宅, 2005 앞 논문, 34쪽.
114) 徐賢珠, 2006 앞 책, 207쪽.
115) 李知熙, 2016 〈한반도 출토 須惠器의 시공적 분포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1~93쪽.

해로 접근하기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일본열도와 활발히 교류하였고, 그 적극성과 유리함은 백제 중앙에도 충분히 인식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쪽의 영산강수계와의 관계 역시 참고할만하다. 고창·영광지역은 영산강수계로 나아갈 수 있는 水陸 교통로 상에서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영광 남부에서 노령산맥을 넘으면 남북으로 길게 흐르는 함평천의 수운을 이용해 영산강 하류까지 나아갈 수 있다.[117] 영산강 중·하류 나주 반남, 영암 시종 세력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본격적인 진출을 예비하는 차원에서도 고창·영광지역이 주요 지방 거점이자 요충지로서 인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 중앙의 입장과 함께, 위세품을 사여받는 현지 세력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봉덕리 고분군 축조 집단은 백제 중앙과의 관계를 통해 화려한 금속 공예품이나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외래 기성품을 입수할 수 있었다. 이 물품들은 희소한 가치를 지닌 선진문물이라는 측면 외에도, 그 자체로 백제 왕권과의 긴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현지 세력은 위세품에 개재된 백제 왕권의 위신을 활용하여 대내적인 지배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백제 중앙과 봉덕리 고분군 축조 집단의 관계는 일방향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성격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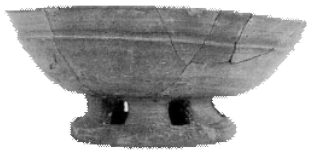
착장형 위세품과 중국제 외래 기성품이 백제 중앙에서 현지 세력에 사여된 것이라면, 그 반대급부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백제 중앙에서 확인되는 高敞系 土器(高杯)이다. 고창계 토기는 배신에 비해 대각의 높이가 낮고, 대각부에 여러 개의 장방형 투창을 뚫은 특징적인 형태의 고배로 정의된다.[118] 봉덕 방형추정분의 주구, 봉덕리 1호분에서 다량 출토되었다. 고창지역에서 생산되어 주변 지역으로 전해진 것으로 이해되는데, 실

116) 土田純子, 2014 앞 책, 111~114쪽.

117) 高田貫太는 현지 답사와 고지도 분석, 그리고 고분의 분포를 통해 나주 반남면-영산강-함평-노령산맥(신광-불갑)-영광-고창 아산면 봉덕리에 이르는 교통로를 상정하고 이를 “나주-고창 루트”로 명명하였다(高田貫太, 김도영 역, 2019 《한반도에서 바라본 고대일본》, 진인진, 238쪽).

118) 酒井淸治, 2004 〈5·6세기의 토기에서 본 羅州勢力〉 《百濟硏究》 39, 68~71쪽.

제 중월리에서 조사된 토기 가마에서 생산이 이루어진 흔적도 확인된 바 있다.[119] 고창이나 인접한 호남 내륙이 아닌 정읍, 군산, 서산 등의 지역에서 고창계 토기가 산발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은 고창지역 집단이 해로나 내륙수로를 통한 교류·교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으로 해석되고 있다.[120] 이때 백제 중앙과 고창지역의 정치적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한성기 백제 왕성인 풍납토성[121]과 웅진기 백제 왕실의 제사·의례 관련 국가 시설로 추정되는 공주 정지산 유적[122]에서도 출토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백제 중앙에 이입된 지방산 물품이라는 점에서 중앙-지방의 정치적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123] 양자의 관계에서 고창지역이 늘 객체였던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할 수 있다.



① 고창 봉덕 유적
나지구 구1

② 풍납토성 197번지
'03-2 트렌치

③ 공주 정지산 유적
A지점 퇴적층 하층

[그림 9] 고창지역과 백제 중앙 출토 고창계 토기

119)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984 《高敞中月里文化遺蹟調査報告書》.
120) 김낙중, 2017 앞 논문, 177쪽.
12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風納土城 XI -풍납동 197번지(舊미래마을) 시굴 및 발굴조사 보고서-》, 87~91쪽.
122)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1 《하늘과 땅의 경계, 공주 정지산 유적 - 자료편》, 96~97쪽.
123) 정지산 유적을 무령왕비의 殯殿으로 보는 관점에서, 정지산 유적에서 출토된 영산강유역 토기를 영산강유역 세력의 조문 사절이 준비해 온 제물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金吉植, 2001 〈氷庫를 통해 본 公州 艇止山遺蹟의 性格〉 《고고학지》 12, 71쪽).

二. 백제의 지방지배 강화와 고창·영광지역 편제

1. 백제의 웅진 천도와 지방지배 재정비

한성기 후반까지 백제 중앙과 고창·영광지역 정치체, 특히 봉덕리 고분군 축조 집단은 착장형 위세품과 외래 기성품 授受의 메커니즘을 통해 긴밀한 정치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백제 중앙은 각 지역에 지배력을 직접 침투시키는 대신, 현지 유력 세력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이것이 한성기 백제 지방지배 방식 중 하나였다. 이러한 형태의 지배 방식을 채택한 데에는 여러 배경이 있었겠지만, 대내적인 지배력 강화보다는 고구려와의 대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124] 특히 한성기 후반 백제는 고구려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 활동을 펼쳐야 했다. 특히 倭와의 관계에서 461년 昆支를 파견하였으며,[125] 웅진 천도 직후에도 외교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인다. 한성기 말에서 웅진기 초에 해당하는 5세기 후엽 고창·영광지역에 전방후원형 고분이 조영되는 것은 이러한 국제정세에서 이 지역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관련된다.

고창·영광지역의 전방후원형 고분인 고창 칠암리 고분(1·2호분)과 영광 월산리 월계 1호분은 각각 구암천과 와탄천을 통해 법성포 앞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지점에 축조되었다. 이 두 유적은 현재의 지형상으로는 각기 독립된 수계에 개별적으로 입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간척 이전의 지형과 海進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126] 토양도 상의 河海性 沖積土의 분포와 일제강점기 지형도를 검토한 결과 [그림 10]과 같이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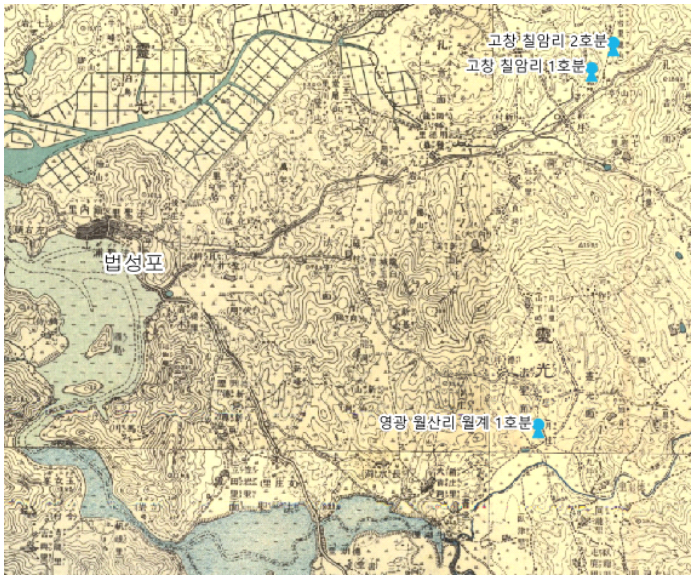
---

124) 김병남, 2020 앞 논문, 133쪽.

125) 《日本書紀》 卷14 大泊瀨幼武天皇 雄略天皇, “五年, 秋七月, 軍君入京, 旣而有五子.【百濟新撰云, 辛丑年, 蓋鹵王遣弟昆支君, 向大倭, 侍天王, 以脩兄王之好也.】”

126) 이윤화·조화룡, 2005 〈와탄천 유역 분지의 지형 발달〉 《한국지형학회지》 12-1, 84~87쪽.

지점의 전방후원형 고분 모두 법성포로 나아가기 용이한 하천 하류역에 위치하여 현재보다 臨海性이 훨씬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고창·영광지역 전방후원형 고분의 입지

칠암리 고분은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5세기 후반에 축조되고, 6세기 전반까지 추가장과 제사 등 의례 행위가 이루어지며 분구와 석실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존에 알려졌던 고분 주변에 또 다른 전방후원형 고분이 확인되어 최소 2기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도 새로이 밝혀졌다.[127] 영광 월산리 월계 1호분은 아직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구와 주구의 외양 외에는 구체적인 현상을 파악할 수 없다. 비교적 완만하게 내려오던 구릉의 능선이 급경사를 이루며 충적평지로 이어지는 지점에 입지한다.[128] 월계 1호분이 축조되던 시기에는 바다를 조망하기에 적합한 위치였을 것이다.

이 두 지점의 전방후원형 고분이 지역의 중심지인 봉덕리 일대와 떨어진 곳에 돌연 출현하였다는 점에서 그 피장자를 봉덕리 세력과 영산강유

127) 李暎澈·林智娜, 2017 《高敞 七巖里古墳》, 대한문화재연구원, 85쪽.
128) 이영철·김영희, 2011 〈2010 미발굴 전방후원분〉 《한반도의 전방후원분》, 학연문화사, 159쪽.

역의 교통을 차단하기 위해 백제 중앙에서 파견한 倭系百濟官僚로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129]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봉덕리 고분군 축조 집단과 백제 중앙은 오히려 매우 긴밀한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현지 세력의 협조나 용인 없이 2~3기의 대형 고분을 축조할 수 있었을지 역시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칠암리 고분과 봉덕리 고분군 축조 집단을 별개의 세력 혹은 대립적인 관계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칠암리 고분의 축조를 봉덕리 세력을 구심점으로 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속에서 살피고, 그 피장자는 해상 기항지의 안정된 운영과 유지를 위해 관계 맺은 인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참고된다.[130] 칠암리 고분에서 출토된 백제계 器臺와 辻金具,[131] 봉덕리 1호분의 원통형토기가 왜의 원통 埴輪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현지화한 것으로 이해됨[132]을 고려할 때, 고창·영광 지역에서의 전방후원형 고분 출현과 해상 기항지 운영은 백제 중앙-현지 유력 세력(봉덕리 고분군)-倭로 이어지는 다각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5세기 후엽 본격화한 백제와 고구려의 대립은 475년 한성 함락과 개로왕의 전사, 웅진으로의 갑작스러운 천도로 귀결되었다. 이는 백제 중앙의 입장에서 매우 큰 위기였다. 웅진 천도 직후 解仇의 전횡과 반란[133]은 웅진 천도 직후 약화된 왕권과 혼란한 내부 정세를 보여준다. 당연히 각 지역에 대한 지배력에도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웅진기 백제 왕권의 당면 과제는 이러한 내부 혼란을 극복하고 중앙과

---

129) 朴天秀, 2006 〈榮山江流域 前方後圓墳을 통해 본 5~6세기 韓半島와 日本列島〉 《百濟硏究》 43, 47쪽.

130) 이영철, 2020 〈고창 칠암리 고분의 성격과 가치〉 《사적 제531호 高敞 봉덕리 고분군의 가치와 사적 확대지정 방안》 고창 마한고분군 사적(확대)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집, 113~115쪽.

131) 칠암리 고분에서 출토된 십금구는 함평 신덕 1호분, 나주 복암리 3호분 96석실 등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李暎澈·林智娜, 2017 앞 책, 77쪽). 특히 신덕 1호분에서 출토된 십금구 연꽃 모양 장식 운주와 세트를 이룸을 볼 때, 백제계 마구로 보인다(노형신, 2021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출토 말갖춤의 특징과 제작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 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 국립광주박물관, 107쪽).

132) 김낙중, 2017 앞 논문, 176~177쪽.

133)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第4 文周王, "四年, 秋八月, 兵官佐平解仇, 擅權亂法, 有無君之心, 王不能制. 九月, 王出獵, 宿於外, 解仇使盜害之, 遂薨."

지방에 대한 지배질서를 회복·재정비하는 것이었다. 웅진 천도 직후인 문주왕 2년 耽羅에서 공물을 바치자 기뻐하며 그 사신에게 恩率을 제수한 기사[134]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웅진 천도 직후의 상황에서도 남방 지역에 대해 공납을 매개로 한 지배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이로부터 20여 년 뒤, 동성왕은 탐라가 貢賦를 바치지 않는다고 하며 친정을 시도한다.[135] 이는 공납 지배의 강제성·정기성을 제고하고 점차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행동으로 해석되고 있다.[136] 웅진기 영산강 중·하류의 나주 반남, 영암 시종 세력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백제의 금동관이 부장되는 것[137] 역시 이 지역과의 정치적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 의도였다.

대외적으로는 對中·對倭 외교를 적극적으로 타진하였다. 비록 고구려에 의해 실패하였지만, 웅진 천도 직후 宋에 사신을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138] 동성왕이 즉위한 이후에는 南齊에 빈번히 예방하였고,[139] 王·侯·太守·將軍 호를 제수받는다.[140] 왜와의 관계 역시 여전히 주요하였다. 477년 왜에서 귀국한 곤지를 내신좌평에 임명하고,[141] 479년 동성왕이 즉위할 때 築紫國 군사 500인의 호위를 받으며 귀국하고 있음[142]을 통해 알 수 있다.

---

134)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第4 文周王, “二年, 夏四月, 躭羅國獻方物, 王喜拜使者爲恩率.”

135)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第4 東城王, “二十年, 八月, 王以耽羅不修貢賦親征, 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耽羅卽耽牟羅.】”

136) 김영심, 2003 앞 논문, 110쪽 ; 홍승우, 2009 〈百濟 律令 반포 시기와 지방지배〉 《한국고대사연구》 54, 239쪽.

137) 김낙중, 2021 앞 논문, 158~160쪽.

138)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第4 文周王 “二年, 三月, 遣使朝宋, 高句麗塞路, 不達而還.”

139) 동성왕은 여섯 차례 남제에 사신을 보내고자 했고, 그중 다섯 번 성공했다(박찬우, 2017 〈백제 동성왕대 대남제 외교전략 -『남제서』 백제전의 표문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5, 284쪽.

140) 《南齊書》 卷58 列傳 第39 東南夷 百濟國.

141)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第4 文周王, “三年, 夏四月, 拜王弟昆支爲內臣佐平.”

142) 《日本書紀》 卷14 大泊瀨幼武天皇 雄略天皇, “廿三年, 夏四月, 百濟文斤王薨. 天王以昆支王五子中, 第二末多王, 幼年聰明, 勅喚內裏, 親撫頭面, 誡勅慇懃, 使王其國. 仍賜兵器, 幷遣筑紫國軍士五百人, 衛送於國, 是爲東城王.”

이러한 안팎에서의 노력을 통해, 무령왕 대에 이르면 백제는 내정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외적으로 국력을 회복하였음을 천명하였다.[143] 이때 지방지배 측면에서 백제의 관심사는 이제껏 직접지배를 관철하지 못했던 남방, 특히 영산강유역 일대로 향하였다. 6세기 전엽 영산강의 지류인 만봉천 유역에 조영된 나주 송제리 고분군에서 백제 중앙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유물과 함께 시원적인 형태의 은제관식이 부장되었다.[144] 이는 백제의 지방지배 방식이 위세품을 매개로 하던 방식에서 지방관 파견에 의한 지배와 가까운 형태로 전환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웅진기 지방지배 방식의 지향점은 군현제에 의한 일원적 통치체제의 구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145] 이는 제도적으로 '檐魯'를 통해 일정 정도 실현되었다. 담로제가 처음 실시된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적어도 《梁職貢圖》가 제작되는 6세기 전엽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며, 중국의 군현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146] 담로제의 실상은 백제 중앙이 지방을 행정 구획화하고, 중요 城·邑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역을 관할한 제도였다. 이때 담로로 구획된 지역 내 하부 단위는 城, 村으로 편제되었다.[147]

웅진기 지방지배 방식의 재편 속에서 고창·영광 지역에도 점차 백제의 직접지배가 관철되어갔다. 이때 고창 북부의 흥덕 지역의 역할이 주목된다. 이 시기 흥덕 일대는 海陸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하였다. 바다로는 현재 흥덕면 사포리·후포리 일대(후대의 沙津浦)를 통해 줄포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며, 육지로는 사비기 中方이 설치되는 고부 지역과 고창·영

---

143)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第4 武寧王, "二十一年, 冬十一月, 遣使入梁朝貢. 先是爲高句麗所破, 衰弱累年, 至是上表稱, "累破高句麗, 始與通好, 而更爲强國."

144) 國立羅州文化財硏究所, 2019 《羅州 松堤里 古墳》, 현장설명회 자료 ; 김낙중, 2021 앞 논문, 162~163쪽.

145) 김영심, 2018 〈백제 웅진시기 지방통치의 구상과 운영의 실제〉 《백제 웅진기 영역과 지방통치》, 한성백제박물관, 103쪽.

146) 《梁書》 卷54 列傳 第48 諸夷 百濟, "號所治城曰固麻, 謂邑曰檐魯, 如中國之言郡縣也. 其國有二十二檐魯, 皆以子弟宗族分據之." ; 《梁職貢圖》 百濟國使, "所治城曰固麻, 謂邑曰, 檐魯, 如中國郡縣. 有二十二檐魯, 分子弟宗族爲之. 旁小國有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文·下枕羅等附之."

147) 鄭載潤, 1992 〈熊津·泗沘時代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韓國上古史學報》 10, 516~517쪽.

광 지역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흥덕은 고창·영광지역과 그 이남에 지배력을 직접적으로 침투시키기 위한 교두보와 같은 지역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흥덕면 오호리 유적 3호 횡혈식석실에서 출토된 '□義將軍' 銘 청동 인장이다. 이 인장을 백제가 중국식 장군호를 대신하여 독자적인 장군호를 운용한 증거로 보기도 했으나,[148] 결락된 첫 글자를 '伏'으로 판독하게 됨에 따라 梁의 장군호 중 하나인 '伏義將軍'임이 밝혀졌다. 인장의 印文과 형태 역시 양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양에서 제작되어 유입된 것으로 이해된다.[149] 이 인장을 통해 문헌 사료에 5세기 이후 확인되지 않았던 중국 장군호의 제수가 梁代에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관작과 함께 인장을 수여하는 것은 동성왕을 백제왕에 임명할 때에 章綬 다섯과 銅虎符·竹使符 넷을 내려주었다는 《南齊書》의 기록[150]을 통해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伏義將軍'의 제정 연대는 양 天監 7년, 즉 508년 이후로 확인된다. 이때 장군의 호칭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면서 국내용 24班 125호, 流外 8班 14호, 외국용 24班 109호를 시행하였다. '伏義'는 외국용 가운데 가장 낮은 1班에 속한다.[151]

문헌 사료에 백제에서 양의 관직을 제수받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5세기 후반의 기록을 통해 추론할 수밖에 없다. 개로왕과 동성왕 대 중국 관작의 활용은, 왕 자신이 남조로부터 제수받은 장군호를 자격으로 신하들에게 王·侯·將軍·太守 등의 관작을 假授하고 除正을 요청하는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장군으로 임명된 대상은 왕족, 중국·낙랑 계통의 인물, 중앙 정계에서 활동한 세력 중심이며, 수여의 근거는 軍功이나 使行으로 나타난다.[152] 즉 백제 국왕이 중국 왕조의 권위를 빌어

148) 정동준, 2012 《동아시아 속의 백제 정치제도》, 일지사, 141쪽.
149) 조윤재, 2009 〈高敞 出土 銅印考〉 《韓國考古學報》 71.
150) 《南齊書》 卷58 列傳 第39 東南夷 百濟國, "牟大今以大襲祖父牟都爲百濟王, 卽位章綬等五, 銅虎竹符四. 王其拜受, 不亦休乎."
151) 《隋書》 卷26 志21 百官上 梁, "又詔以將軍之名, 高卑舛雜, 命更加厘定. … 懷義, 奉信,, 歸誠, 懷澤, 伏義, 擬綏虜等五號, 爲一班. 凡十號, 爲一品. 大凡一百九號將軍, 亦爲十品, 二十四班. 正施於外國. 及大通三年, 有司奏曰, "天監七年, 改定將軍之名, 有因有革.…."

자신의 신하들을 포상하고, 동시에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방식 중 하나였다. 이러한 장군호 활용의 원리를 6세기대의 상황으로 확대해 본다면, 수여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중앙 정계 밖의 지방 현지 세력에게 수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중국 관작의 권위를 활용하는 포상 방식은 그것이 통용되고 의미를 지니는 왕과 신하라는 위계화된 정치적 관계 내에서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伏義將軍'을 수여 받고 청동 인장을 소유한 인물 역시 중앙 정계와 밀접하게 관계된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청동 인장을 소유한 인물이 중앙과 관련된 인물이었다는 점은 인장이 출토된 횡혈식석실의 구조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오호리 유적에서는 횡혈식석실 4기가 확인되었다.[153] 그중 인장은 3호 석실에서 출토되었는데, 장방형의 현실에 연도가 왼쪽으로 편재된 형태이다. 현실 바닥에서 관못이 출토된 점으로 보아,[154] 관못으로 결구한 목관을 사용하여 시신을 매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장과 함께 보주형 꼭지가 달린 뚜껑과 금동제 세환 이식이 출토되었으며, 연도 아래에 暗渠形의 배수로가 길게 시설되었다. 3호 석실로부터 5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4호 석실 역시 현실 평면형태 장방형에 좌편재 연도를 갖추었으며, 석실 내부에서 직구단경호, 흑유단경호, 개배, 삼족기, 유리구슬이 출토되었다.[155]

---

152) 朴璨旴, 2014 〈5~6세기 百濟의 將軍號 활용과 그 의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3~41쪽.

153) 안효성, 2009 앞 책.

154) 안효성, 2007 〈고창 오호리 신지매 유적〉 《국가 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제3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 334~336쪽.

155) 4호 석실 출토유물 가운데 삼족기나 유리구슬 등은 발굴조사보고서 본문의 서술에서는 누락되어 있으나, 함께 수록된 도면과 도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안효성, 2009 앞 책, 170쪽).

[그림 11] 오호리 유적 3호 석실
출토유물과 청동 인장

오호리 유적의 석실은 지하식의 석실을 축조하였다는 점에서, 남당리 고분이나 봉덕리 고분군처럼 5세기대 분구묘 전통 위에 축조된 횡혈식석실과는 확연히 달라진 양상이다. 석실 4기 평면형태가 장방형으로 일원화되어있으며, 삼족기로 대표되는 백제 토기를 부장하고 있다. 3호 석실에서 확인되는 암거형의 긴 배수로 역시 웅진 왕도의 횡혈식석실에서 확인되는 요소이다.[156] 이러한 석실의 형태와 청동 인장의 존재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그 피장자는 중앙 정계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홍덕 일대의 지방지배와 관련된 지방관적 성격의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위세품을 통해 현지 유력 세력을 포섭하여 지역 지배에 활용하던 이전의 방식과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중앙 정계의 원리에 따라 파견 또는 임명된 인물을 통해 직접적인 지방지배를 도모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인장은 그 자체로 '장군'으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보여주는 물품이기도 하지만, 본래 기능은 지방관의 주요 임무인 문서 행정과 관련된다. 그러한 점에서 똑같이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청자와 청동 인장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전자가 희소성을 바탕

156) 이현숙, 2020 〈百濟 熊津王都 내 橫穴式石室墓의 造營傳統과 變遷〉 《한국고대사탐구》 34, 392~393쪽.

으로 하여 위세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물품이라면, 후자는 실제적인 지방지배에서의 권한을 표상한다.

흥덕 지역에서 지방관과 같은 존재를 암시하는 유적이 확인되는 한편, 그 이남의 고창·영광지역에서는 분구묘의 전통이 점차 소멸하고 횡혈식석실의 형태에서 백제 중앙의 영향이 강해지는 변천 과정을 밟는다. 봉덕리 1호분 대상부에서의 매장 행위는 6세기 전엽 경 종료된다.[157] 횡혈식석실 역시 점차 백제 중앙의 영향을 띄게 된다. 대표적으로 고창 상갑리 1호분은 일부 九州系 석실의 영향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웅진기 백제 석실의 지역 형식으로 볼 수 있다.[158] 한편, 영광군 남부 불갑천 유역에 학천리 대천 고분군이 축조된다. 구릉 능선 정상부를 따라 4기의 고분이 열을 지어 위치하는데, 분구의 형태는 원형이며 분구마다 횡혈식석실이 1기씩 조영되었다.[159] 분구 내에 지상식 석실을 설치하는 분구묘의 전통을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고분의 입지, 석실의 구조, 부장품 등에서 백제 중앙의 영향이 간취된다.

웅진 천도 이후 백제의 지방지배력이 강화되고 그 방식이 점차 직접지배를 표방하게 되면서, 현지의 특정 유력 세력을 매개로 한 지역 지배가 아닌, 전 지역을 균등하고 획일적인 시스템 안에 편제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전 단계까지 봉덕리 고분군 축조 집단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백제 중앙과의 관계는 약화되었다. 지방 거점으로서의 위상 역시 점차 쇠퇴하고, 북쪽으로는 흥덕, 남쪽으로는 불갑천 유역 등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

157) 이문형, 2020 앞 논문, 172~173쪽.
158) 김낙중, 2017 앞 논문, 166쪽.
159) 최성락·김건수, 2000 《영광 학정리·함평 용산리 유적》, 목포대학교 박물관.

2. 사비기 方-郡-城 체제로의 편제

6세기 중반 사비 천도 이후, 백제의 지방지배 방식은 全 영역에 대한 영역지배의 관철로 귀결된다. 제도적으로도 方-郡-城으로 조직된 지방통치체제가 완비된다. 사비기 지방통치체제의 가장 상위 단위인 '方'은 중국 사서인《周書》,《北史》,《翰苑》에서 확인된다.[160] 모두 5방의 명칭과 규모, 조직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때 고창·영광지역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지목해볼 수 있는 것은 中方이다.

중방은 5방제를 기록한 사료에 일관되게 '古沙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 고사성은 《三國史記》의 古沙夫里城 축조 기사,[161] 《日本書紀》의 古沙山과 통하며, 古沙夫里郡이 설치되었던 정읍 고부면으로 비정된다.[162] 《翰苑》百濟傳의 첫 구절인 "國鎭馬韓, 地苞狗素"의 狗素 또한 고부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이 지역이 백제 영역 인식과 지방통치에서 지니는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중방의 관할 범위에 대해서는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각 방이 적게는 6~7군, 많게는 10군을 다스린다는 기록과 나머지 방성의 위치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중방 외에 北方 熊津城은 공주, 東方 得安城은 은진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南方 久知下城(卞城)과 西方 刀先城(力光城)은 다양하게 비정되고 있다. 이중 남방은 주로 그 기능을 섬진강유역 진출이나 영산강유역 지배와 연결지으며, 남원, 장성, 광주, 나주 등으로 비정이 이루어지고 있다.[163] 남방의 위치 비정에 따라 고창·영광지역의 영속 관계 추정 역시 가변적이다. 이에 백제 멸망 이후 군현의 영속 관계를 통해 추적할 필요가 있다.

당이 백제 故地 지배를 위해 설치하였던 熊津都督府는 도독부 아래에 7州 51縣을 두었다. 이때 고부에는 古四州의 치소가 설치되고 5개 현(平

---

160) 《周書》 卷49 列傳 第41 異域 上 百濟 ; 《北史》 卷94 列傳 第82 百濟 ; 《翰苑》 蕃夷部 百濟.

161)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第1 溫祚王, "八月, 修葺圓山·錦峴二城, 築古沙夫里城."

162) 千寬宇, 1989 앞 책, 388쪽.

163) 金勤英, 2015 〈木簡을 통해 본 泗沘時代의 豆肹〉,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2~74쪽.

倭, 帶山, 辟成, 佐贊, 淳牟)을 관할하였다.[164] 백제 때까지 고부가 지녔던 지방통치의 행정 거점 역할을 계승·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사주에 속한 다섯 개 현의 범위는 김제부터 고창 흥덕을 아우르는데, 백제 중방으로서 고부의 관할 범위는 이보다 더 넓었던 것으로 추정된다.[165] 그렇다면 남으로 맞닿아있는 고창·영광지역 역시 중방의 관할에 속했던 것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고창·영광지역을 영속했던 중방의 지배 경관은 정읍 고부면 고사부리성과 영원면 일대의 사비기 횡혈식석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고사부리성(舊 고부구읍성)에서는 '上部上巷' 명 인각와와 기와, 삼족기, 병형토기 등 백제 유물이 출토되어 백제 사비기에 초축된 중방성의 치소였음이 명확해졌다.[166] 사비기 고부 일대 지배 계층의 묘역으로 주목되는 것은 정읍 영원면 일대의 은선리·후지리 고분군 등이다. 영원면 일대의 지표조사를 통해 고사부리성 주변의 천태산과 응봉산 능선 남사면을 중심으로 100여 기 이상의 웅진·사비기 횡혈식석실이 확인되었다.[167] 그중 일부 유구에 대한 실측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은선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보면 횡혈식석실의 형태는 크게 아래 [그림 12]처럼 네 유형으로 구분된다. 웅진기 말에 해당하는 형식부터 사비기의 전형적인 능산리식 석실까지 계기적 변화상을 보인다.[168] 이렇게 전형적인 중앙 양식의 석실로 획일화되어가는 모습을 통하여, 중방이라는 지방통치의 거점이 운영되고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묘역이 조성되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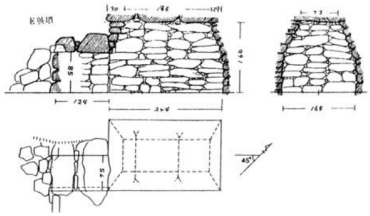
164) 《三國史記》 卷37 雜志 第6 地理4 百濟, "古四州, 本古沙夫里, 五縣. 平倭縣, 本古沙夫村. 帶山縣, 本大尸山. 辟城縣, 本辟骨. 佐贊縣, 本上杜. 淳牟縣, 本豆奈只."

165) 김영심, 2019 〈백제 中方城의 설치와 고부지역의 통치양상〉 《馬韓·百濟文化》 33, 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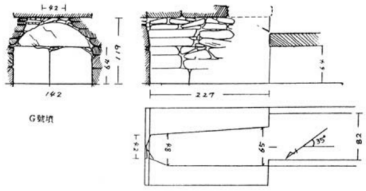
166) 박영민·서지은·조명일·김유리나, 2009 《井邑 古阜舊邑城》, 전북문화재연구원 ;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21 《정읍 고사부리성(7차)》.

167) 전북문화재연구원, 2005 《井邑 永元面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22~1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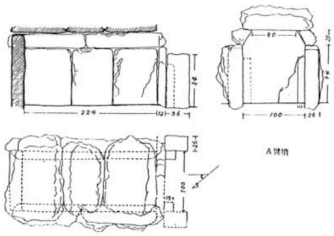
168) 김낙중, 2013a 앞 논문, 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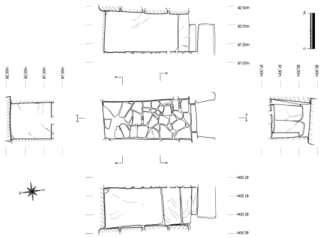
① b-1호분(1973년 E호)



② b-8호분(1973년 G호)



③ a-35호분(1973년 A호)



④ a-36호분(2018년 조사)

[그림 12] 정읍 은선리 고분군 횡혈식석실의 유형

고창·영광지역에서도 사비기 횡혈식석실의 축조를 통해 지방지배의 양상을 일부 파악할 수 있다. 우선 고창지역에 축조된 사비기 횡혈식석실은 예지리 고분, 선동 유적, 동교 고분, 율계리 유적에서 확인되었다. 그 중 가장 전형적인 능산리식 석실에 가까운 예는 예지리 고분이다. 예지리 고분은 산사면에 위치하며, 판상석으로 축조된 현실 단면 육각형의 석실이다. 연도는 오른쪽으로 편재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관못과 금동제 이식으로, 薄葬의 양상을 그대로 보여준다.[169] 그런데 상대적으로 현실의 폭이 넓고, 문설주석이 없으며, 연도가 길며 편재된 점은 지역적인 특징으로 지목되기도 한다.[170]

예지리 고분처럼 전형적인 능산리식의 석실은 아니지만, 그 영향을 받아 판상석으로 축조된 석실이 고창지역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4세기대 제형 분구묘가 조영되었던 선동 유적에는 사비기가 되면 횡혈식석실 1기가 축조되는데, 단벽은 한 매의 판석, 장벽은 3~4매의 판석으로 구축하였고 현실 단면은 사각형이다. 연도는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쳤

169) 李暎澈·李永德·朴泰洪, 2005 《高敞 禮智里 古墳》, 湖南文化財硏究院.
170) 김낙중, 2017 앞 논문, 168쪽.

다. 치석이나 석재의 조합 양상에서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171] 인근의 율계리 유적에서도 판석으로 축조한 횡혈식석실이 확인되었다. 천장석과 연도부 등 많은 부분의 석재가 유실, 교란되어있지만 장방형의 평면형태와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친 연도를 확인할 수 있다.[172] 연도의 형태에서 선동 유적 석실과의 유사성이 확인된다. 이전 시기까지 삼국시대 분묘나 주거 유적의 조사 예가 명확하지 못했던 무장면 일대에도 사비기 횡혈식석실이 축조되었다. 산사면에 위치한 동교 고분은 판상석을 이용하여 축조된 단면 사각형의 석실로, 내부에서 금동제 이식, 단경호와 함께 관못, 꺾쇠, 관고리 등의 목관 부속품이 출토되었다.[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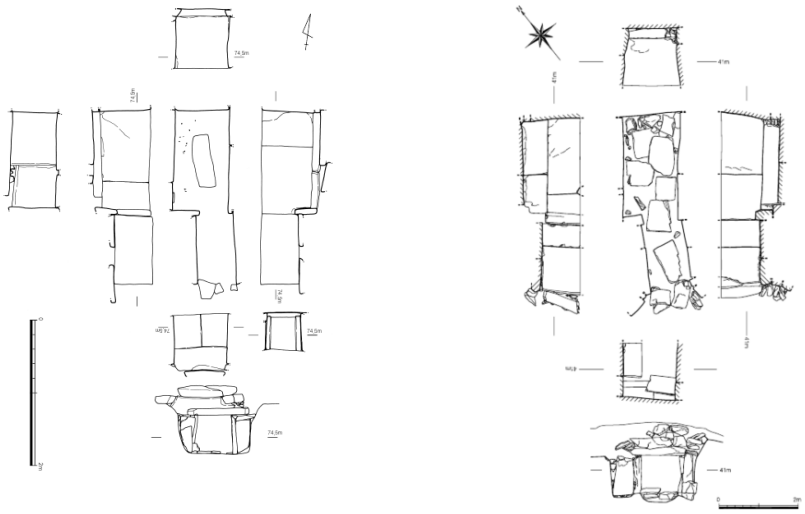
영광지역에서는 사비기 횡혈식석실이 정식으로 조사된 예는 없지만, 발견 매장문화재로 지하식 석실과 출토유물이 신고된 바 있다. 삼족기, 등잔, 병, 관못 등의 출토유물이 수습되었는데, 토기 편년 결과 잠정적으로 6세기 후엽으로 보고되었다.[174] 사비기의 횡혈식석실로 이해되며 주변에 소형 판석이 존재한다는 기술로 보아 군집분일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 정식으로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백수읍 천마리 금자동 고분군, 군남면 설매리 서고 고분군 등이 6세기 이후의 백제 석실분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175]

고창·영광지역에서 단면 육각형과 사각형의 석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사비기 전 시기에 걸쳐 중앙과 유사한 횡혈식석실의 변천 과정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분구묘 전통이 사라지고 사비기 횡혈식석실이 축조되어가는 양상은 봉덕리 고분군으로 대표되던 현지 세력의 쇠퇴라는 관점에서 주로 언급되어왔다. 백제의 직접지배에 따라 6세기 중엽부터 봉덕리 고분군의 지위가 위축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176] 대내적으로 일정 수준의 자치를 용인받던 집단이 쇠퇴하고, 백제 중앙의 지배력이 직

171) 湖南文化財硏究院, 2013 앞 책, 107~108쪽.
172) 湖南文化財硏究院, 2007 《高敞 栗溪里遺蹟》, 41~44쪽.
173) 湖南文化財硏究院, 2013 앞 책, 214~222쪽.
174) 殷和秀·宣在明·尹孝男, 2004 〈靈光 松竹里古墳 出土遺物〉 《海南 龍日里 龍雲古墳》, 國立光州博物館, 11~15쪽.
175)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1 《영산강유역의 고대고분 정밀분포조사보고서》, 75쪽.
176) 이문형, 2020 앞 논문, 172~173쪽.

접 관철되어가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사비기 고창·영광지역에서 횡혈식석실이 전파되고 변화하는 양상 자체에도 주목할 필요도 있다. 특히 사비기 백제의 지방 고분에서 나타나는 지역성은 묘제의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왕권과의 관계와 지역 집단의 묘제 전통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177] 특히 사비기 횡혈식석실에는 왕도 사비를 정점으로 하는 정밀한 규격성이 존재하였다. 그러한 규격성이 각 지역에 조영된 석실분에 어느 정도로 반영되어 있느냐에 따라 중앙 지배력의 침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178]



① 고창 예지리 고분　　② 정읍 은선리 c-12호분

[그림 13] 예지리 고분과 은선리 c-12호분 비교

이러한 맥락에서 은선리 c-12호분[179]과 고창 예지리 고분은 석실 규격에 반영되는 중앙-지방, 지방 간의 정치·사회적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림 13]에서 보이듯 은선리 c-12호분과 예지리 고분은 석실의 핵

177) 김낙중, 2018 〈백제 지방고분의 변천과정과 의미〉 《동아시아 고분문화와 백제 왕릉의 위상》, 백제역사유적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124쪽.

178) 山本孝文, 2007 〈百濟 泗沘期 石室의 設計와 構造系統論〉 《韓國考古學報》 63, 143쪽.

179) 金圭正·田枝浩, 2011 《井邑 隱仙里 C-12號墳》, 전북문화재연구원.

심적인 요소인 현실의 장폭비가 1.8:1로 동일하고, 양 장벽을 두 매의 판상석으로 세우고 있는 점, 우편재의 연도가 오른쪽으로 살짝 휘어지듯 돌출되어있는 점에서 흡사하다.

예지리 고분은 전형적인 능산리식 석실의 형태이지만 연도의 형태에서 도읍 근교의 석실과는 차이를 보여 중앙에서 활동했던 공인 집단이 아닌 설계도의 유통을 통해 축조된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180] 이러한 견해를 참고한다면 예지리 고분과 은선리 c-12호분의 축조 계획에 동일한 설계도가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고창·영광지역은 사비기 중방 고사부리성의 관할로 편제되면서, 백제의 지방통치체제 내로 완전히 편입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토기 양식과 생산에서도 확인된다. 웅진기까지도 고창지역을 중심으로 고배, 유공광구소호 등 여러 기종에서 지역색이 강하게 확인되고 있었지만,[181] 6세기 중엽이 되면 雲谷里 토기 가마 등 전형적인 백제 토기인 삼족기, 병형 토기 등을 생산하는 유적이 확인된다.[182] 이 지역이 생산체제의 측면에서도 완전히 백제의 지배력 내로 편입되고 문화적으로도 획일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분묘의 규격성, 생산체제의 획일화와 함께 지방행정과 관방의 기능을 담당하는 성곽의 존재 여부도 주목된다. 고창·영광지역의 고대 산성으로는 고창 예지리 토성, 서산산성, 영광 법성면 성촌토성 등이 있지만[183] 모두 초축 시점이나 주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시굴 조사가 진행된 예지리 토성에서는 구상유구, 망루형 건물지, 두형토기편 등이 확인되었고 문지와 정밀하게 판축 다짐한 토루 등의 흔적이 드러나 고창·영광지역 고대 성곽 유적의 양상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184]

---

180) 山本孝文, 2007 앞 논문, 131~138쪽.
181) 徐賢珠, 2006 앞 책, 202~203쪽.
182) 全榮來, 1984 〈高敞, 雲谷里百濟窯址發掘報告〉 《高敞, 雅山地區支石墓發掘報告書》, 全州市立博物館, 102~111쪽.
183)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3 《영산강유역 고대산성》.
184) 이택구, 2020 〈2019년 호남지역 백제 고고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百濟學報》 33, 85~86쪽.

660년 백제가 멸망함에 따라 고창·영광 지역은 당 웅진도독부 체제를 거쳐 신라의 지방으로 편입된다. 주목되는 것은 당이 운영한 도독부 체제에서는 흥덕 이남의 고창·영광지역이 영광읍 일대를 치소로 둔 沙泮州로 설정되어, 고부의 관할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185] 전통적인 지역 중심지였던 고창읍 일대가 아닌, 사비기까지도 지방지배나 행정에서 두드러지는 역할이 확인되지 않는 영광읍 일대를 州治로 삼았다는 점에서 당이 백제 고지를 재편하는 또 하나의 방식을 보여준다. 앞서 고부의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행정 거점을 그대로 활용하기도 하는 한편, 영광읍 일대와 같이 새로운 중심지를 설정하기도 한 것이다. 이는 백제 고지의 정비를 맡은 劉仁軌가 기존의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하되 戶口의 변화를 반영하여 적절한 선에서의 통폐합을 통해 지방 행정구역을 재정비하고자 했다는 지적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186] 이에 고창·영광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영광읍 일대가 부상하게 되었으며, 그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이후 고려·조선시대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고창·영광지역은 3세기대 마한의 구성분자로 출발하여 백제 중앙과 정치적 관계를 전개하였으며, 사비기가 되면 백제의 군현으로 편제되었다. 백제의 시기별 지방통치의 지향점이 고창·영광지역 지배 과정의 추이에 잘 드러나며, 이는 대내외 정세와도 밀접하게 연동되어있다. 고창·영광지역 내의 중심적인 역할은 백제 멸망 전까지 고창천 유역이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으나 백제 멸망 이후 영광읍 일대로 이동하게 되어, 지역 내에서의 위상 변화와 역전을 관찰할 수 있다.

---

185) 《三國史記》 卷37 雜志 第6 地理4 百濟, “沙泮州, 本号尸伊城, 四縣. 牟支縣, 本号尸伊村. 無割縣, 本毛良夫里. 佐魯縣, 本上老. 多支縣, 本夫只.” : 각각 牟支縣은 영광읍 일대, 無割縣은 고창읍 일대, 佐魯縣은 상하면 일대에 치소를 두었으며 多支縣의 위치는 함평 나산면 일대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정확히는 알 수 없다(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2012 《역주 삼국사기 4 - 주석편(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447~448쪽).

186) 박지현, 2013 〈熊津都督府의 성립과 운영〉 《韓國史論》 59, 111쪽.

맺음말

본고는 백제의 고창·영광지역 지배 과정의 추이와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고창·영광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백제 중앙과의 관계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고창·영광지역에서 정치체의 성장과 발전은 3세기 중엽부터 감지되기 시작한다. 소하천 별로 권역을 이루어 분묘·생활유적이 분포하는데, 이때의 물질문화는 각각 제형계 분구묘와 방형계 사주식 주거지로 대표된다. 이러한 개별 취락은 상호작용을 통해 결집하여 각 하천 유역별로 정치체를 형성하는데, 고창천, 대산천·와탄천, 해리천, 그리고 갈곡천 유역의 양상이 주목된다. 각 권역에서 성립한 정치체 간의 위계는 환두도, 구슬류로 대표되는 위세품의 편중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정치체 간 동일한 모티프를 가진 문양을 공유하면서 일정 정도의 통합을 이루는 양상도 확인된다. 이러한 정치적 관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주변 지역들을 압도하였던 것은 고창천 유역의 정치체였다. 이들은 해로를 통해 금강유역, 더 나아가서는 한강유역 세력과 교류하며 이를 기반으로 성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치체의 역사적 실체는 《三國志》 韓條의 마한 50여 국 가운데 '牟盧卑離國'으로 비정된다.

4세기 후엽 백제는 고대국가로 성장하며 백제로의 통합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고, 특히 남쪽으로의 영역 확장을 시도하였다. 《日本書紀》 神功紀 49년 기사의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 自然降服"은 근초고왕 대 동진강 연안의 김제, 부안, 고부, 태인, 그리고 고창 흥덕 지역이 백제 중앙과 정치적 관계를 형성하고 백제의 일부로 인식되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이러한 정치적 관계의 변동이 곧바로 물질문화의 변동 혹은 백제화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 원인으로는 백제가 각 지역의 지배 방식에 임하는 태도나 지역 정치체의 대응, 당시의 국제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정치적 관계의 변화와 물질문화 변동의 상관관계라는 측면에서, 백제의 영역화를 곧 물질문화의 획일화로 이해해 온 관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근초고왕 대의 남진을 계기로 흥덕 이남의 고창·영광지역 정치체는 백제 중앙의 영향력과 대면하게 되었다.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전엽까지 고창지역의 분묘와 생활유적에서 일부 산발적으로 유입되지만, 정치적 관계가 강하게 개재된 위세품이 등장하는 것은 5세기 중엽 이후이다. 이 시기 지역 정치체의 내적 성장과 백제 중앙과의 관계 강화는 봉덕리 고분군의 조영을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그중 고대한 방대형 고총인 봉덕리 1호분에는 횡혈식석실이 축조되었으며, 누대에 걸쳐 금속제 착장형 위세품과 중국제 외래 기성품이 부장되었다.

위세품 수수의 메커니즘은 백제 중앙과 현지 세력 양자의 수요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백제 중앙은 노령 이북 지역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확보, 서해 연안을 통한 일본열도와의 교류에서의 이점이라는 측면에서 봉덕리 고분군 축조 집단을 중시하고 우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고창에서 출발하여 영산강 하류로 이어지는 수륙 교통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산강수계로의 진출을 미리 대비하는 효과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봉덕리 고분군 축조 집단은 백제 중앙과의 관계를 통해 희소하고 선진적인 문물을 입수할 뿐만 아니라 그 물건에 개재된 백제 왕권의 위신을 적극적으로 지역 지배에 활용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백제 중앙과 봉덕리 고분군 축조 집단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아닌 쌍방향의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백제 왕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적인 풍납토성, 공주 정지산 유적에서 고창지역에서 제작된 고창계 고배가 출토되는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성기 후반, 백제는 고구려와의 대결 속에서 다각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특히 대왜 외교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창·영광지역이 갖는 연안 항로에서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고창 칠암리 고분, 영광 월산리 월계 고분은 법성포로 나아갈 수 있는 지점에 축조된 전방후원형 고분으로, 백제 중앙-현지 세력(고창 봉덕리)-倭로 이어지는 다각적인 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웅진기 후반 백제는 남방 영역에 대한 지방지배 방식의 변화와 재정비를 모색한다. 그 지향점은 '檐魯'로 대표되는 지방관 파견과 군현제 실시,

즉 직접지배의 관철에 있었다. 이에 따라, 백제 중앙은 더이상 봉덕리 고분군 축조 집단과 같은 특정 유력 세력을 우대하고 지원하던 방식이 아니라, 전 지역을 획일적인 시스템 안에 편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백제 중앙과의 정치적 관계를 독점해왔던 봉덕리 고분군 축조 집단의 위상과 권한은 주변부로 점차 분산되었다. 이에 해륙 교통로 상의 요충지인 흥덕 오호리 유적에서 웅진 왕도와 유사한 형태의 횡혈식석실이 조영되고, '伏義將軍' 銘 청동 인장이 출토된 것은 흥덕 일대를 지배하고 주변 교통로를 관장했던 지방관적 성격의 인물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사비기 백제의 지방통치체제는 '方-郡-城' 체제로 완비되고, 고창과 영광지역 역시 中方의 관할로 편제되었다. 중방의 관할 범위는 고부의 고사부리성을 중심으로 현재의 정읍, 김제, 부안, 고창, 영광 등을 포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 중앙의 지방 통치력은 고부의 중방을 매개로 지역 사회에 전해졌으며, 분묘의 규격화와 생산체제의 통일도 이루어졌다. 이에 고창·영광지역은 온전한 의미의 백제의 '지방'으로 편제되게 된다. 한편, 백제가 멸망한 이후 당의 웅진도독부 체제는 백제의 기존 지방행정구역을 그대로 활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체 후 재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고창·영광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영광읍 일대가 부상하게 되었으며,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진다.

본고는 고창·영광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백제 중앙과의 관계 변화를 고찰하고, 백제의 지역 지배 과정에서 확인되는 통시적 변화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백제의 지역 지배 과정을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일방적인 확산이나 진출로만 인식하거나, 반대로 현지 세력의 성장과 쇠퇴로만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중앙과 각 지역의 유기적인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지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동일 권역으로 묶이는 고창·영광지역을 함께 다루어, 현재 행정구역상의 편의대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구분되어 연구되는 경향 속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던 이 지역의 역사적 의미도 함께 드러내고자 했다.

그러나 본고는 고창·영광 지역 정치체와 백제 중앙과의 관계에 집중하

여, 인접한 전북 지역이나 영산강유역과의 관계는 본격적으로 살피지 못했다. 특히 고창·영광 지역이 백제 중앙과 영산강 중·하류 세력 간의 관계 속에서 수행했을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Ⅰ. 자료

1. 사료

《南齊書》, 《北史》, 《三國史記》, 《三國志》, 《隋書》, 《梁書》, 《梁職貢圖》, 《日本書紀》, 《周書》, 《晉書》, 《翰苑》

2. 발굴조사보고서·자료집·도록류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1 《영산강유역의 고대고분 정밀분포조사보고서》.

_____, 2013 《영산강유역 고대산성》.

_____, 2019 《羅州 松堤里 古墳》, 현장설명회 자료.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風納土城 XI -풍납동 197번지(舊미래마을) 시굴 및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020 《전북지역 馬韓 문화 - 성립기편》.

국립전주박물관, 2004 《기증문화재 특별전 전북인의 마음》.

_____, 2009 《마한, 숨쉬는 기록》.

김건수·노미선·양해웅, 2003 《高敞 鳳德遺蹟Ⅰ -방형추정분·구-》, 湖南文化財硏究院.

_____, 2003 《高敞 鳳德遺蹟Ⅱ -주거지·구-》, 湖南文化財硏究院.

金建洙·李永德, 2004 《高敞 萬洞遺蹟》, 湖南文化財硏究院.

金建洙·韓修英, 2002 《高敞 校雲里 遺蹟》, 湖南文化財硏究院.

金圭正·田枝浩, 2011 《井邑 隱仙里 C-12號墳》, 전북문화재연구원.

金鍾文·金圭正·梁英珠, 2007 《高敞 南山里遺蹟 -墳墓-》, 전북문화재연

구원.
대한문화재연구원, 2015 《高敞 蜂山里 黃山遺蹟 Ⅱ》.
박영민·서지은·조명일·김유리나, 2009 《井邑 古阜舊邑城》, 전북문화재연구원.
안효성, 2009 《高敞 石橋里·五湖里 遺蹟》, 전북문화재연구원.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984 《高敞中月里文化遺蹟調査報告書》.
_____, 2016 《高敞 鳳德里 1號墳 종합보고서》.
이기길·김선주·최미노, 2003 《영광 마전·군동·원당·수동유적》, 조선대학교박물관.
李暎澈·李永德·朴泰洪, 2005 《高敞 禮智里 古墳》, 湖南文化財硏究院.
李暎澈·林智娜, 2017 《高敞 七巖里古墳》, 대한문화재연구원.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20 《고창 하련리유적》.
_____, 2021 《정읍 고사부리성(7차)》.
전북문화재연구원, 2005 《井邑 永元面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_____, 2007 《高敞 南山里遺蹟 -住居址-》.
전주대학교 박물관, 2002 《서해안 고속도로(군산-고창) 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고창 예지리·우평리-》.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고창 금평리·왕촌리·고성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조선문화유산연구원, 2021 《고창 도산리 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 자료집》.
최성락·김건수, 2000 《영광 학정리·함평 용산리 유적》, 목포대학교 박물관.
최성락·이영철·한옥민·김영희, 2001 《영광 군동유적 - 라지구 주거지·분묘-》, 목포대학교박물관.
최완규 책임편집, 2006 《韓國의 墳丘墓 資料集》, 제49회 전국역사학대회 고고학부 발표자료집.

최완규·조규택, 2005 《高敞의 周溝墓 -新德里Ⅲ-A, 道山里, 城南里Ⅲ·Ⅳ, 光大里 遺蹟-》,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_____, 2006 《高敞의 住居址 Ⅱ -牛坪里Ⅱ, 洛陽里, 城南里Ⅰ·Ⅴ-A·Ⅴ-B·Ⅵ遺蹟-》,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최완규·조규택·양영주, 2006 《高敞의 住居址 Ⅰ -新德里Ⅰ·Ⅱ·Ⅲ-B, 新松里, 竹林里 支石墓, 竹林里, 山亭里 遺蹟-》,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1 《하늘과 땅의 경계, 공주 정지산 유적 - 자료편》.
湖南文化財硏究院, 2007 《高敞 栗溪里遺蹟》.
_____, 2013 《高敞 仙洞遺蹟》.
黃昌漢·李秀鴻·鄭鉉錫·成旻浩·鄭大鳳·金一中, 2021 《高敞巳盤里遺蹟》, 蔚山文化財硏究員.

Ⅱ. 연구논저

1. 단행본

高田貫太, 김도영 역, 2019 《한반도에서 바라본 고대일본》, 진인진.
김기섭, 2000 《백제와 근초고왕》, 학연문화사.
김낙중, 2009 《영산강유역 고분 연구》, 학연문화사.
노중국, 2018 《백제 정치사》, 일조각.
朴淳發, 2001 《漢城百濟의 誕生》, 서경문화사.
徐賢珠, 2006 《榮山江 流域 古墳 土器 硏究》, 學硏文化社.
연민수, 2003 《古代韓日交流史》, 혜안.
이한상, 2009 《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지배》, 서경문화사.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2012 《역주 삼국사기 4 - 주석편(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정동준, 2012 《동아시아 속의 백제 정치제도》, 일지사.
千寬宇, 1989 《古朝鮮史·三韓史硏究》, 一潮閣.
土田純子, 2014 《百濟土器 東아시아 交叉編年 硏究》, 서경문화사.
한옥민, 2019 《영산강유역 고분의 축조 연구》, 진인진.
홍금수, 2008 《전라북도 연해지역의 간척과 경관변화》, 국립민속박물관.

末松保和, 1961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山尾幸久, 1989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2. 논문

강동석, 2011 〈GIS를 활용한 지석묘 공간분포패턴의 사회경제적 배경 이해 - 고창분지 일대를 중심으로-〉 《중앙고고연구》 8.
姜鳳龍, 1999 〈3~5세기 영산강유역 '甕棺古墳社會'와 그 성격〉 《歷史敎育》 69.
권오영, 2001 〈백제국(伯濟國)에서 백제(百濟)로의 전환〉 《역사와 현실》 40.
_____, 2004 〈物資·技術·思想의 흐름을 통해 본 百濟와 樂浪의 교섭〉 《漢城期 百濟의 물류 시스템과 對外交涉》, 학연문화사.
_____, 2007 〈고고자료로 본 지방사회〉 《百濟의 政治制度와 軍事》,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_____, 2010 〈馬韓의 종족성과 공간적 분포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60.
金勤英, 2015 〈木簡을 통해 본 泗沘時代의 豆肹〉,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섭, 2021 〈4~5세기 백제의 인구와 남방영역〉 《한국고대사연구》 102.
金吉植, 2001 〈氷庫를 통해 본 公州 艇止山遺蹟의 性格〉 《고고학지》 12.

김낙중, 2013a 〈고고학 자료로 본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의 위치〉 《百濟學報》 9.
_____, 2013b 〈백제 묘제 연구에서 공주 수촌리 고분군이 갖는 의미〉 《수촌리유적의 고고학적 성과와 의의》, 공주 수촌리유적 발굴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_____, 2017 〈고대 고창 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변동〉 《湖南考古學報》 56.
_____, 2018 〈백제 지방고분의 변천과정과 의미〉 《동아시아 고분문화와 백제 왕릉의 위상》, 백제역사유적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_____, 2021 〈영산강유역권 마한 관련 유적의 최신 조사 성과와 의의〉 《湖南考古學報》 67.
金美齡, 2008 〈韓半島 西南部地域의 玉 硏究 -3~5世紀 墳墓遺蹟 出土玉을 中心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령·김승옥, 2018 〈장신구〉 《마한 고고학개론》, 진인진.
김병남, 2020 〈백제의 '전북지역' 진출 과정과 추이 변화〉 《전북사학》 58.
金承玉, 2004 〈全北地域 1~7世紀 聚落의 分布와 性格〉 《韓國上古史學報》 44.
金英心, 1997 《百濟 地方 統治體制 硏究 -5-7세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03 〈웅진·사비시기 百濟의 領域〉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
_____, 2018 〈백제 웅진시기 지방통치의 구상과 운영의 실제〉 《백제 웅진기 영역과 지방통치》, 한성백제박물관.
_____, 2019 〈백제 中方城의 설치와 고부지역의 통치양상〉 《馬韓·百濟文化》 33.
金元龍, 1990 〈馬韓考古學의 現況과 課題〉 《馬韓·百濟文化》 12.
김은정, 2016 〈전북지역 원삼국시대 문화적 공백기에 대한 재검토〉

《중앙고고연구》 19.
金河廷, 2005 〈고창분지의 지형 발달 특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상원, 2013 〈제작 기술을 통해 본 백제 흑색마연토기의 의미〉 《韓國考古學報》 89.
盧美善, 2007 〈菱形紋土器 小考〉 《硏究論文集》 7.
_____, 2011 〈전북지역의 유공광구소호〉 《고대인의 바람과 다짐이 깃든 성스러운 토기 유공소호》, 진인진.
盧重國, 1987 〈馬韓의 成立과 變遷〉 《馬韓·百濟文化》 10.
_____, 2012 〈문헌기록을 통해 본 영산강 유역 -4~5세기를 중심으로-〉 《백제와 영산강》, 학연문화사.
노형신, 2021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출토 말갖춤의 특징과 제작지〉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 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 국립광주박물관.
박순발, 2013 〈유물상으로 본 백제의 영역화 과정〉 《백제, 마한과 하나되다》, 한성백제박물관.
_____, 2016 〈백제의 해상교통과 기항지 -對 中國 航路를 중심으로-〉 《百濟學報》 16.
朴信映, 2019 〈백제 한성기 횡혈식석실묘의 도입과 확산과정〉 《百濟硏究》 70.
박윤선, 2008 〈백제와 송·제·양 교섭기사에 대한 고찰〉 《역사문화연구》 31.
박준영, 2016 〈한국 고대 유리구슬의 생산과 유통에 나타난 정치사회적 맥락〉 《韓國考古學報》 100.
박지현, 2013 〈熊津都督府의 성립과 운영〉 《韓國史論》 59.
朴璨旴, 2014 〈5~6세기 百濟의 將軍號 활용과 그 의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2017 〈백제 동성왕대 대남제 외교전략 -『남제서』백제전의 표문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5.

朴天秀, 2006 〈榮山江流域 前方後圓墳을 통해 본 5~6세기 韓半島와 日本列島〉 《百濟硏究》 43.
山本孝文, 2007 〈百濟 泗沘期 石室의 設計와 構造系統論〉 《韓國考古學報》 63.
成洛俊, 1983 〈榮山江流域의 甕棺墓硏究〉 《百濟文化》 15.
성윤길, 2020 〈고창 봉덕리 고분 출토 금동신발의 문양 특징과 의미〉 《馬韓·百濟文化》 36.
성정용, 2018 〈마한의 시간과 공간〉 《마한고고학개론》, 진인진.
안효성, 2007 〈고창 오호리 신지매 유적〉 《국가 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제3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
梁起錫, 2013 〈全南地域 馬韓社會와 百濟〉 《百濟學報》 8.
유원재, 1998 〈百濟 領域變化와 地方統治〉 《百濟의 地方統治》, 學硏文化社.
윤용구, 2005 〈고대중국의 동이관(東夷觀)과 고구려 -동이교위(東夷校尉)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5.
_____, 2014 〈『진서』동이東夷 조공기사朝貢記事의 재검토〉 《한국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殷和秀·宣在明·尹孝男, 2004 〈靈光 松竹里古墳 出土遺物〉 《海南 龍日里 龍雲古墳》, 國立光州博物館.
李康承, 2000 〈분구묘에 대한 하나의 고찰 -전북 고창군 흥덕면 용반리 회맹단 고분을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 12.
李道學, 1991 〈百濟의 交易網과 그 體系의 變遷〉 《韓國學報》 63.
李命熹·成洛俊·孫明助·申相孝·李漢周, 1989 〈靈光地方의 古墳〉 《靈巖臥牛里 甕棺墓》, 國立光州博物館.
이문형, 2015 〈제작기법과 문양을 통해 본 백제 금동신발의 편년〉 《중앙고고연구》 18.
_____, 2020 《高敞 鳳德里古墳群 築造勢力 硏究》,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李丙燾, 1936 〈三韓問題의 新考察(三) -辰國及三韓考-〉 《진단학보》

4.
_____, 1970 〈百濟近肖古王拓境考〉 《百濟硏究》 1.
이보람, 2009 〈금강유역 원삼국~삼국시대 환두도 연구〉 《韓國考古學報》 71.
이영철, 2004 〈옹관고분사회 지역정치체의 구조와 변화〉 《湖南考古學報》 20.
_____, 2005 〈榮山江流域의 原三國時代 土器相〉 《원삼국시대 문화의 지역성과 변동》, 제2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료집.
_____, 2020 〈고창 칠암리 고분의 성격과 가치〉 《사적 제531호 高敞 봉덕리 고분군의 가치와 사적 확대지정 방안》 고창 마한고분군 사적(확대)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집.
이영철·김영희, 2011 〈2010 미발굴 전방후원분〉 《한반도의 전방후원분》, 학연문화사.
이윤화·조화룡, 2005 〈와탄천 유역 분지의 지형 발달〉 《한국지형학회지》 12-1.
이정아, 2015 〈고창 봉산리 황산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 검토〉 《高敞 蜂山里 黃山遺蹟 Ⅲ》, 대한문화재연구원.
이지영, 2008 〈호남지방 3~6세기 토기가마의 변화양상〉 《湖南考古學報》 30.
李知熙, 2016 〈한반도 출토 須惠器의 시공적 분포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택구, 2015 〈전북지역 분구묘의 제 속성 비교 검토〉 《韓國考古學報》 97.
_____, 2020 〈2019년 호남지역 백제 고고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百濟學報》 33.
이한상, 2014 〈고고자료에 투영된 한성백제의 중앙과 지방〉 《백제의 왕권은 어떻게 강화되었나》, 한성백제박물관.
이현숙, 2020 〈百濟 熊津王都 내 橫穴式石室墓의 造營傳統과 變遷〉 《한국고대사탐구》 34.

李熙濬, 2000 〈대구 지역 古代 政治體의 형성과 변천〉 《嶺南考古學》 26.
임기환, 2000 〈3세기～4세기초 위(魏)·진(晉)의 동방 정책 -낙랑군·대방군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6.
임동민, 2018 〈『晉書』 馬韓 교섭기사의 주체와 경로〉 《한국고대사연구》 89.
林永珍, 1995 〈馬韓의 形成과 變遷에 대한 考古學的 考察〉 《三韓의 社會와 文化》, 신서원.
全榮來, 1984 〈高敞, 雲谷里百濟窯址發掘報告〉 《高敞, 雅山地區支石墓發掘報告書》, 全州市立博物館.
_____, 1985 〈百濟 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正音文化社.
전진국, 2020 〈馬韓 개념과 '國'에 대한 기록〉 《百濟學報》 31.
정동준, 2018 〈백제 근초고왕대의 마한 영역화에 대한 사료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91.
정상기, 2013 〈高敞 鳳德里 出土 靑磁盤口壺의 製作時期 檢討: 中國 南京市 出土品과 比較 檢討를 통해〉 《東垣學術論文集》 14.
정일, 2015 〈삼국시대 황산취락의 경관 검토〉 《高敞 蜂山里 黃山遺蹟 Ⅲ》, 대한문화재연구원.
정일·최미숙, 2013 〈강진 양유동취락의 특징과 고대사적 의미〉《湖南考古學報》 45.
鄭載潤, 1992 〈熊津·泗沘時代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韓國上古史學報》 10.
_____, 2013 〈문헌자료로 본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 《百濟學報》 9.
趙圭宅, 2005 〈湖南 西海岸地域 3～5世紀 墳丘墓 硏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趙誠嬉, 2021 〈3～7世紀 全北地域 聚落의 考古學的 硏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윤재, 2009 〈高敞 出土 銅印考〉 《韓國考古學報》 71.
酒井淸治, 2004 〈5·6세기의 토기에서 본 羅州勢力〉 《百濟硏究》 39.
崔夢龍, 1987 〈考古學的 側面에서 본 馬韓〉 《馬韓·百濟文化》 9.
최성락, 2008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실체 -해석의 관점에 대한 논의-〉 《지방사와 지방문화》 11-2.
최완규, 2015 〈마한 성립의 고고학적 일고찰〉 《한국고대사연구》 79.
최완규·김중엽, 2019 〈고고학을 통해 본 고창의 마한〉 《고창의 마한문화유산》, 고창군·전라문화유산연구원.
한수영, 2003 〈고창권역의 마한시대 소고〉 《硏究論文集》 3.
홍승우, 2009 〈百濟 律令 반포 시기와 지방지배〉 《한국고대사연구》 54.

Abstract

The Process and Trend of Baekje's Domination on the Gochang and Yeonggwang regions

Choi Youngeun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ekje's domination process in the regions of Gochang and Yeonggwang took place according to Baekje's conception of local governance, the existence and response of local forces,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of the time.

The growth of 'polities' in Gochang and Yeonggwang can be traced to the mid 3rd century C.E.. Individual villages were formed around the small river basin and then they came together to collectively form basic-level polities. Political and social differences and integration coexisted between the polities and this was reflected in the

phenomenon of sharing patterns of the same motif and concentration of round ring-swords and beads.

The polities in the Gochangcheon basin played a central role and emerged as a dominant force over its surrounding areas. They grew based on exchanges with the outside world through sea routes. They were called '*Morobiri-guk*(牟盧卑離國)' and they became one of the 50 Mahan countries in *Samguk-ji*(《三國志》).

During the late 4th century Baekje expanded its political influence on the area north of Heungdeok, south of Gimje. Material culture related to the center of Baekje began to appear sporadically in the Gochang and Yeonggwang regions.

Toward the latter half of the 5th century, large-sized ancient tombs were built in the Gochang and Yeonggwang regions, with prestigious goods being brought in. This became possible by combining the internal growth of local polities and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Baekje Kingdom. In particular, Bongdeok-ri tomb accommodated a new graveyard, stone chamber and prestige goods such as gilt-bronze shoes and Chinese celadon which were found buried inside. The Baekje Kingdom sought to take advantage by strengthening control over the northern part of Noryeong mountain range, vitalizing exchanges with the Wa(倭), and securing transportation routes to the Yeongsan River basin. Meanwhile, the Bongdeok-ri tomb group exerted their power over the Gochang and Yeonggwang regions by utilizing the prestige of the Baekje Kingdom. As such, the mechanism of receiving the prestige goods was operated by the demand of both the Baekje Kingdom and the local people.

Baekje actively engaged in diplomatic relations with Wa amid the confrontation with Goguryeo. Accordingly, the role of the Gochang and Yeonggwang regions of the West Sea coastal route became

highlighted. The key-hole shaped tombs built near the Beopseongpo reflected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s of the time.

After moving its capital to Ungjin, Baekje reorganized its control over the provinces. The aim was to organize the entire region through a uniform system, not by preferential treatment to particular local forces. The bronze seal of the Ohori tomb suggests the existence of local officials that dominated the area.

In the Sabi-period, Baekje implemented a prefecture system for all provinces. Gochang and Yeonggwang regions were under the control of Jungbang that was centered on Gobu. The dominance of the Baekje Kingdom was delivered to the local communities through Jungbang. The tombs and the production system became standardized. In this respect, the Gochang and Yeonggwang regions became organized as complete 'provinces' of Baekje.

keywords : Baekje, Gochang, Yeonggwang, Domination of local polities, Yeongsan River basin, Jungbang
Student Number : 2019-26241